

『醫學入門·傷寒篇』 중 「六經」條의 引用書와 내용 비교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原典醫史學教室¹·病理學教室²

김경석¹·趙學俊¹*·김정범²

Comparison reference books and details on text of Yukgyeong(六經) in Uihakyimmun · Sanghanpyeon(醫學入門·傷寒篇)

Kim Kyeong-suk¹ · Jo Hak-jun¹ * · Kim Jeung-beum²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 ²Pathology, Semyung University

On the text of Yukgyeong(六經) in 『Sanghanpyeon(傷寒篇) in Uihakyimmun(醫學入門)』, we got some conclusion like below, and the study was mainly referred to 『Hwangjenaegyongju(黃帝內經注)』 written by Wangbing(王冰), 『Juhaesanghanron(注解傷寒論)』, 『Sanghanrye(傷寒例)』 by Seongmugi(成無己), 『Namyanghwalinseo(南陽活人書)』, 『Sanghanbaekmun(傷寒百問)』 by Jugoeng(朱肱), 『Sanghanbaekjeungga(傷寒百證歌)』 by Heosukmi(許叔微), and 『Injejikji(仁齋直指)』 by Yangsayeong(楊士瀛).

‘Gyeong(經)’ quoted in 『Sanghanpyeon(傷寒篇) in Uihakyimmun(醫學入門)』 meant not only quoted from 『Naegyong(內經)』, but 『Sanghanron(傷寒論)』 by Jangjunggyeong(張仲景). All the symptoms of Yukgyeong(六經) was sorted on the basis of 『Juhaesanghanron(注解傷寒論)』, and we can find the symptoms of Soyang(少陽) in the editing of Taeyangbyoung(太陽病), also symptoms of Taeum(太陰) in Yangmyeongbyoung(陽明病).

On the changing order of Yukgyeong(六經), 『Jeungjuryujeunghwalinseo(增注類證活人書)』 explained it through conflict of five stage, but 『Uihakimmun(醫學入門)』 interpreted it with proper and inverse condition of main stream of Yukgi(六氣).

Key Words : Sanghanpyeon(傷寒篇) in Uihakimmun(醫學入門), general features of Yukgyeong(六經提綱), all symptoms of Yukgyeong(六經所屬諸證), the order of change of Yukgyeong(六經傳變順序), surface and bottom of Yukgyeong(六經標本)

I. 序論

* 교신저자 : 조학준, 충북 제천시 신월동 579번지 세명대학교
한외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Tel: 043-649-1347, Fax:
043-649-1702, E-mail: johohun@kornet.net
접수일(2008년 4월 26일), 수정일(2008년 5월 13일), 게재확
정일(2008년 5월 16일)

李梴은 『醫學入門集例』에서 傷寒篇의 내용은 陶
華의 『傷寒六書』를 위주로 하고 成無己의 『傷寒論註
』와 朱肱의 『南陽活人書』, 未詳의 『傷寒百問』, 許叔

微의 『傷寒百證歌』, 未詳의 『王氏家寶』, 楊士瀛의 『仁齋直指』 등을 補入하였다¹⁾고 하였고, 「仲景張先生傷寒纂要」에서는 成無己의 『傷寒論』, 朱肱의 『傷寒百問』 즉 『南陽活人書』, 許叔微의 『傷寒百證歌』, 未詳의 『活人大全』 및 陶華의 『傷寒六書』, 未嘗의 『王氏家寶』와 각 名家의 서적에서 참고하였으나 未詳의 『陸氏傷寒』은 미처 보지 못했다²⁾고 밝히고 있다.

또한 傷寒篇의 分類 次序에 대해 未詳의 「活人賦」의 내용을 改訂 補修하고, 역시 未詳의 「病機」와 「用藥」의 두 편을 절충하였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王履의 『醫經溯回集』을 열람하니 論한 次序가 매우 비슷하지만 아울러 편찬하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³⁾고 하였다.

李梴은 이상의 서적의 내용을 근거로 傷寒病을 正傷寒, 類傷寒, 初證, 雜證, 變證, 瘥證 및 危證, 死證 등으로 編次 分類하고 있다.

『傷寒論』의 연구방식은 대체로 條文 자체를 注釋하는 방법과 原文을 새로 改編, 정리하는 방법과 病證 등을 근거로 分類, 補充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醫學入門』의 이러한 編次는 『傷寒論』의 연구에 있어서 『傷寒論』 條文 자체를 注釋하여 연구하는 것보다 病證을 위주로 編次, 補充함으로써 臨床에 더욱 꺾진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근래까지 많이 習讀하여 임상에 활용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이 읽고 활용한 데에 비하여 『醫學入門』의 編制에 대해 차용석, 김남일⁴⁾이 연구하였을 뿐, 『醫學入門』의 傷寒病 分類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醫學入門·傷寒篇』 중에서 「六經」條에 대해, 『醫學入門』에서 인용한 王冰의 『黃帝內經注』, 成無己의 『注解傷寒論』과 『傷寒例』, 朱肱의 『南陽活人書』, 『傷寒百問』, 許叔微의 『傷寒百證歌』, 楊士瀛의 『仁齋直指』 등을 위주로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傷寒論』 條文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外感病의 臨床에도 적절히 활용함에 있어 『醫學入門』

의 傷寒病에 대한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I. 本 論

1. 『醫學入門·傷寒篇』의 引用書

李梴은 傷寒篇의 내용에 대해서 『醫學入門·集例』에서 陶氏의 『六書』를 위주로 하고 『傷寒論註』와 『活人書』, 『百問』, 『百證歌』, 『王氏家寶』, 『仁齋直指』 등을 補入하였다⁵⁾고 하였다.

陶氏의 『六書』는 陶華의 『傷寒六書』(또는 『傷寒瑣言』)를 지적하며, 『南陽活人書』는 朱肱의 著書이며, 『百證歌』는 許叔微의 『傷寒百證歌』를 지적하며, 『仁齋直指』는 楊士瀛의 『仁齋傷寒類書』를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서 『傷寒論註』는 清代 柯琴이 지은 同名의 『傷寒論註』가 있으나 『醫學入門』은 明代에 지어진 책이므로 당연히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을 지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百問』에 대해서 『國譯編註醫學入門』에서는 어떤 책인지에 대한 고찰이 없고⁶⁾ 『百問百證歌』라는 책으로 인식하였다⁷⁾. 그러나 『中國醫籍通考』와 『中國醫籍考』에 의하면 『百問百證歌』라는 명칭의 서적은 없으며, 朱肱의 『南陽活人書』, 『傷寒百問』과 錢聞禮의 『傷寒百問歌』, 『傷寒百問方』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傷寒百問歌』는 宋代 醫家인 錢聞禮가 『南陽活人書』를 歌訣의 형태로 고치고 湯尹才가 지은 『傷寒解惑論』을 卷首에 붙여서 만든 것이고, 『傷寒百問方』은 역시 錢聞禮의 저서이나 전해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⁸⁾⁹⁾ 한편 『(國譯)活人書』의 「역자서문」에서 『活人書』의 처음 이름은 『傷寒百問』(1107년)으로서 自序가 있고, 1111년 張葢(장천)이 序文을 쓰고 『南陽活人書』로 명칭을 바꾸었고 1118년 朱肱이 수정하여 간행하였다고¹⁰⁾ 밝히고 있다. 『中國醫學

1)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14.

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7.

3)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14.

4) 차용석, 김남일. 의학입문의 편제분석. 경희한의대논문집. 1999. 22(1).

5)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14.

6) 李梴 著. 채인식, 안병국, 이병행 역. 국역편주의학입문(I). 서울. 南山堂. 1979. pp.7-10.

7) 李梴 著. 채인식, 안병국, 이병행 역. 국역편주의학입문(III). 서울. 南山堂. 1979. p.23.

8) 嚴世堃.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292.

9)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56. p.395.

史』에서 『南陽活人書』는 『傷寒類證活人書』, 『類證活人書』라고 부른다고¹¹⁾ 하였다. 이로써 『百問』은 錢聞禮의 『傷寒百問歌』일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내용은 『南陽活人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百問』은 『傷寒百問』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南陽活人書』의 初刊本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또한 『王氏家寶』에 대해서 『國譯編註醫學入門』에서는 王氏의 『家寶』는 未詳이라고¹²⁾ 밝히고 있고, 『中國醫學史』에는 ‘家寶’라는 이름의 서적은 없다. 그러나 『中國醫籍考』에는 『王氏家寶傷寒證治條明』의 서적을 기재하고 있는데 著者인 王震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9권이 있으며 전해온다고¹³⁾ 밝히고 있고, 『中國醫籍通考』에서 王震의 『王氏家寶傷寒證治條明備覽』이란 서적을 기재하고 明代 天啓間의 抄本 중 4권, 5권만 전해온다고¹⁴⁾ 밝히고 있다.

따라서 『王氏家寶』는 明代 醫家인 王震의 『王氏家寶傷寒證治條明備覽』이라는 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4권과 5권만 전해지며 국내에 책이 유통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醫學入門』과 비교·고찰하지 못하였다.

李梴은 傷寒篇의 내용에 대해서 「仲景張先生傷寒纂要」에서는 『傷寒論』, 『百問』, 『百證歌』, 『活人書』, 『活人大全』, 陶氏의 『六書』, 『王氏家寶』와 각 名家의 서적에서 참고하였으나 陸氏의 『傷寒』은 미처 보지 못했다¹⁵⁾고 밝히고 있다.

『傷寒論』에 대해서 『國譯編註醫學入門』에서는 張仲景의 『傷寒論』으로 해석하고 있는데,¹⁶⁾ 『醫學入門』 傷寒篇의 내용을 살펴보면 成無己의 『傷寒論註』와 『傷寒明理論』의 내용을 대량으로 인용하고 있고 「集

例』에서 成無己의 『傷寒論註』를 補入하였다고 하였으므로 「仲景張先生傷寒纂要」에서 말한 『傷寒論』은 張仲景의 『傷寒論』뿐만 아니라 成無己의 『傷寒論註』와 『傷寒明理論』까지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百問』, 『百證歌』, 『活人書』, 陶氏의 『六書』, 『王氏家寶』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고찰하였으므로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活人大全』에 대해서 『國譯編註醫學入門』에서 未詳이라고 하였는데¹⁷⁾, 『(國譯)活人書』의 「역자서문」에서 『活人書』의 처음 이름은 『傷寒百問』(1107년)으로서 自序가 있고, 1111년 張葢(장천)이 序文을 쓰고 『南陽活人書』로 명칭을 바꾸었고 1118년 朱肱이 수정하여 간행하였는데 이것이 가장 마지막 본이며 전서는 20권이라고¹⁸⁾ 하였다. 그러나 『活人大典』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한 『古今醫統大全』¹⁹⁾이나 『永樂大典』²⁰⁾ 중에 『活人書』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내용을 고찰하였으나 언급이 없었다. 『增注類證活人書』의 自序에서 『活人書』가 『百問』에 비해 10배 자세하다고²¹⁾ 밝히고 있다.

이로써 결과적으로 『百問』은 『南陽活人書』의 初本(1107년)을 지적하며, 『活人書』는 張葢가 서문을 쓴 『南陽活人書』(1111년)를 지적하며, 『活人大全』은 1118년에 완성한 『增注類證活人書』를 지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陸氏의 『傷寒』에 대해서 李梴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다²²⁾고 밝히고 있으므로 『醫學入門』 傷寒篇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中國醫籍通考』에 의하면 明代 弘治間(1487-1505) 抄本인 陸彦功의 『傷寒類證便覽』이 있는데, 明代 洪武間(1368-1398)의 黃仲理가 自序에 『傷寒類證』을 정리·수정·보충하였다고²³⁾ 밝히고 있다. 『醫學入門』은 萬曆間(1573-

10) 朱肱 著. 임진석 역. (國譯)活人書. 서울. 아티전. 1997. 역자서문 중에 설명이 있다.

1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7. p.157.

12) 李梴 著. 채인식, 안병국, 이병행 역. 국역편주의학입문(Ⅲ). 서울. 南山堂. 1979. p.23.

13)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56. p.436.

14) 嚴世堯.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361.

15)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7.

16) 李梴 著. 채인식, 안병국, 이병행 역. 국역편주의학입문(Ⅲ). 서울. 南山堂. 1979. p.23.

17) 李梴 著. 채인식, 안병국, 이병행 역. 국역편주의학입문(Ⅲ). 서울. 南山堂. 1979. p.23.

18) 朱肱 著. 임진석 역. (國譯)活人書. 서울. 아티전. 1997. 역자서문 중에 설명이 있다.

19) 徐春甫. 古今醫統大全(上).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p.601-768. 傷寒門에서 검색함.

20) 趙道震. 永樂大典(醫藥集). 北京. 인민위생출판사. 1986. pp.7-31. 目錄 부분에서 검색함.

21)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3.

2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7.

1620)에 지어졌으므로 『醫學入門』 著書 이전에 『傷寒論』과 관련한 저술을 한 사람 중에 陸氏는 陸彦功가 유일하다. 이로써 『陸氏傷寒』이란 陸彦功의 『傷寒類證便覽』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醫學入門·集例』에 傷寒篇의 分類 次序에 대해 「活人賦」의 내용을 改訂 補修하고 「病機」와 「用藥」의 두 편은 李梴 자신이 折衷하였는데, 나중에 『溯回集』을 열람하니 論한 次序가 매우 비슷하지만 아울러 편찬하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²⁴⁾고 하였다.

「活人賦」에 대해서 『國譯編註醫學入門』에서 별다른 설명이 없는데²⁵⁾, 『仁齋直指』(또는 『仁齋直指』)의 내용을 살펴보면²⁶⁾ 『仁齋直指』 1권인 「活人證治賦」를 지적한다.

「病機」와 「用藥」은 『醫學入門』 傷寒篇 자체가 六經, 五法, 正傷寒, 類傷寒, 初證, 雜證, 變證, 瘥證, 危證, 死證, 婦人傷寒의 「病機」編과 傷寒用藥賦의 「用藥」編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溯回集』은 王履가 지은 『醫經溯回集』을 지적한다.

2. 『醫學入門·傷寒篇』의 「六經」의 引用書와 내용 비교

『醫學入門·傷寒篇』은 크게 둘로 나누면 六經, 五法, 正傷寒, 類傷寒, 初證, 雜證, 變證, 瘥證, 危證, 死證, 婦人傷寒의 「病機」編과 「傷寒用藥賦」의 「用藥」編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중 「病機」編은 成無己의 『傷寒明理論』을 주로 인용하고 『注解傷寒論』, 朱肱의 『傷寒百問』(또는 『南陽活人書』, 『活人大全』), 許叔微의 『傷寒百證歌』, 陶華의 『傷寒六書』, 楊士瀛의 『仁齋直指』를 참고하였으며, 「用藥」編은 주로 『注解傷寒論』과 『傷寒六書』를

인용하고 있다.

이에 『醫學入門·傷寒篇』의 「六經」條의 내용을 인용서적과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1) 『黃帝內經王冰注』와의 비교

① 病證

太陽病 身熱에 대해서 “陽雖人身正氣, 鬱則爲邪爲熱, 熱雖甚不死.”²⁷⁾라고 하였는데, 이는 『素問·熱論』에서 “人之傷於寒也, 則爲病熱, 熱雖甚不死, 其兩感於寒而病者, 必不免於死.”²⁸⁾라고 한 내용을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② 傳變 日數

六經病의 傳變 日數에 대해서 「經絡難拘日數」에서 “經云 一日, 足太陽膀胱之經. 二日, 足陽明胃之經. 三日, 足少陽膽之經. 四日, 足太陰脾之經. 五日, 足少陰腎之經. 六日, 足厥陰肝之經.”²⁹⁾이라고 하였다.

이는 『素問·熱論』에서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頭項痛腰脊強. 二日陽明受之, 陽明主肉, 其脈俠鼻絡於目, 故身熱目疼而鼻乾, 不得臥也. 三日, 少陽受之, 少陽主膽, 其脈循脇絡於耳, 故脇胸痛而耳聾, 三陽經絡皆受其病, 而未入於藏者, 故可汗而已. 四日, 太陰受之, 太陰脈布胃中絡於噎, 故腹滿而噎乾. 五日, 少陰受之, 少陰脈貫腎絡於肺, 繫舌本, 故口燥舌乾而渴. 六日, 厥陰受之, 厥陰脈循陰器而絡於肝, 故煩滿而囊縮. ……其不兩感於寒者, 七日, 巨陽病衰, 頭痛少愈. 八日, 陽明病衰, 身熱少愈. 九日, 少陽病衰, 耳聾微聞. 十日, 太陰病衰, 腹減如故, 則思飲食. 十一日, 少陰病衰, 渴止不滿, 舌乾已而嚏. 十二日, 厥陰病衰, 囊縱小腹微下, 大氣皆去, 病日已矣.”³⁰⁾이라는 내용을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③ 傳變과 直中

傳變과 直中에 대해서 「三陰利用乎變法有[中]有

23) 嚴世雲,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340.

24)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14.

25) 李梴 著. 채인식, 안병국, 이병행 역. 국역편주의학입문(III). 서울. 南山堂. 1979. p.23.

26) 楊士瀛. 欽定四庫全書仁齋直指.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570-664.

2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87-1088.

28) 王冰 著.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역. 黃帝內經素問王冰注(中). 大田. 周珉出版社. p.5.

2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1.

30) 王冰 著.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역. 黃帝內經素問王冰注(中). 大田. 周珉出版社. pp.5-8.

[傳]에서 “然豈無傳變者乎. 假如傳經之際, 輕生者, 或被生冷, 或犯房慾, 或粗工, 猛施汗下, 眞氣衰弱, 陽證變爲陰證, 如俗所謂陽證歸陰, 仍宜直中寒證法治, 故內經, 止言傳變, 而不言直中者, 盖言變 則包直中.”³¹⁾라고 하여 내경에는 단지 傳變을 말하였지 直中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素問』과 『靈樞』에서 ‘傳’을 말한 곳은 『素問·皮部論』에서 “是故百病之始生也, 必先於皮毛, 邪中之則腠理開, 開則入客於絡脈, 留而不去, 傳入於經, 留而不去, 傳入於府, 廩於腸胃. 邪之始入於皮也, 泝然起毫毛, 開腠理. 其入於絡也, 則絡脈盛色變. 其入客於經也, 則感虛乃陷下. 其留於筋骨之間, 寒多則筋攣骨痛, 熱多則筋弛骨消, 肉燼膿破, 毛直而敗.”³²⁾라고 하고, 『調經論』에서 “風雨之傷人也. 先客於皮膚 傳入於孫脈 孫脈滿 則傳入於絡脈 絡脈滿 則輸於大經脈 血氣與邪并客於分腠之間 其脈堅大 故曰實 實者外堅充滿 不可按之 按之則痛”³³⁾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變’을 말한 곳은 『素問·六微旨大論篇』에서 “岐伯曰, 氣有勝復, 勝復之作, 有德有化, 有用有變, 變則邪氣居之. 帝曰, 何謂邪乎? 岐伯曰, 夫物之生, 從於化, 物之極, 由乎變, 變化之相薄, 成敗之所由也, 故氣有往復, 用有遲速. 四者之有, 而化而變, 風之來也. 帝曰, 遲速往復, 風所由生, 而化而變, 故因盛衰之變耳, 成敗倚伏遊乎中, 何也.”³⁴⁾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直中’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醫學入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內經』에 있지 않다.

④ 기타

『醫學入門』에서 “經曰 陰病見陽脈而生.”³⁵⁾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經’은 『內經』이 아니라 『傷寒論·辨脈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에서도 『傷寒論·辨脈法』을 『經』이라고 지칭한 것³⁶⁾을 따른 것이다.

(2) 成無己의 『注解傷寒論』, 『傷寒例』와의 비교

① 六經提綱

李梴은 六經提綱에 대해서 大註에 “[太陽]則頭疼身熱脊強”, “[陽明]則目痛鼻乾不眠”, “[少陽]耳聾脇痛寒熱嘔而口爲之苦”, “[太陰]腹滿自利尺寸沈而津不到咽”, “[少陰]舌乾口燥”, “[厥陰]煩滿囊拳”³⁷⁾이라고 하였다. 이는 『傷寒例』에서 “尺寸俱浮者, 太陽受病也, 當一二日發. 以其脈上連風府, 故頭項痛, 腰脊強. …… 尺寸俱長者, 陽明受病也, 當二三日發. 以其脈俠鼻, 絡於目, 故身熱, 目疼, 鼻乾, 不得臥. …… 尺寸俱弦者, 少陽受病也, 當三四日發. 以其脈循脅絡於耳, 故胸脅痛而耳聾. …… 尺寸俱沈細者, 太陰受病也, 當四五日發. 以其脈布胃中, 絡於噎, 故腹滿而噎乾. …… 尺寸俱沈者, 少陰受病也, 當五六日發. 以其脈貫腎, 絡於肺, 系舌本, 故口燥舌乾而渴. …… 尺寸俱微緩者, 厥陰受病也, 當六七日發. 以其脈循陰器, 絡於肝, 故煩滿而囊縮.”³⁸⁾라고 한 것을 요약하여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② 三陰三陽의 意義

三陰三陽의 意義에 대해서 “陽從下起, 三陽之長, 曰太陽.”³⁹⁾ “陽爲明, 夾於二陽之中, 陽氣盛極, 故曰陽明.”⁴⁰⁾ “少, 初也. 陽氣初嫩, 亞於陽明, 故曰少陽.”⁴¹⁾ “陰從天降, 首曰太陰.”⁴²⁾ “次於太陰, 故曰少陰.”⁴³⁾ “厥陰者, 陰盡則變, 而厥逆生. 盖傳經至此已盡, 無復可傳, 再傳則逆于手經矣.”⁴⁴⁾라고 밝히고 있는데, 『傷寒例』에서 “太陽爲三陽之長 …… ”⁴⁵⁾이라고 한 내용을 근거로 發明하여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太陽病 頭痛의 病機에 대해서 太陽의 小註에 “頭

36) 成無己. 仲景全書注解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279.

3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87-1090.

38)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p.94-96.

3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7.

4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4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4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43)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4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0.

45)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3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96-1097.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98.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6.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44.

35)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43.

者, 諸陽之會, 氣病則麻, 血病則痛.”⁴⁶⁾라고 하였는데, 이는 『注解傷寒論』에서 “氣病者則麻, 血病者則痛.”⁴⁷⁾라는 내용을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③ 脈象

太陽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浮, 浮緊傷寒, 浮緩傷風.”⁴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注解傷寒論』에 “傷寒脈緊, 傷風脈緩者, 寒性動急而風性解緩故也.”⁴⁹⁾라고 한 내용을 小註로 고쳐서 표현한 것이다.

陽明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長, 長而微洪, 經病. 長而沈數, 腑病.”⁵⁰⁾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 “陽明血氣俱多, 尺寸俱長者, 邪并陽明, 而血氣滯溢也.”⁵¹⁾라고 하고, “三陽受邪, 爲病在表, 法當汗解. 然三陽亦有便入腑者, 入腑則宜下, 故云未入於腑者, 可汗而已.”⁵²⁾라고 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經病과 腑病의 차이를 언급하였으나 그 脈象의 차이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少陽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弦, 弦而滑數者, 陽極發厥. 弦而和者, 病欲散.”⁵³⁾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 “內經曰 陽中之少陽, 通於春氣, 春脈弦, 尺寸俱弦者, 知少陽受邪也.”⁵⁴⁾라고 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陽極發厥과 병이 낫는 脈象의 차이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太陰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邪在表, 則見陽脈, 邪在裏, 則見陰脈, 故尺寸俱沈. 沈實有力, 當下, 沈細無力, 當溫.”⁵⁵⁾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 “陽極則陰受之, 邪傳三陽既遍, 次乃傳於陰經. 在陽爲在表, 在陰爲在裏. 邪在表則見陽脈, 邪在裏則見陰脈. 陽邪傳陰, 邪氣內陷, 故太陰受病 而脈尺寸俱沈細也

.”⁵⁶⁾라고 하고 또 “三陰受邪, 爲病在裏, 於法當下. 然三陰亦有在經者, 在經則宜汗, 故云已入於腑者, 可下而已.”⁵⁷⁾라고 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傷寒例』에서는 瀉下와 溫中할 脈의 차이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少陰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沈. 沈實有力, 當下. 沈微無力, 當溫.”⁵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 “少陰腎水也, 性趨下. 少陰受病, 脈尺寸俱沈也.”⁵⁹⁾라고 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傷寒例』에서 瀉下와 溫中할 脈의 차이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厥陰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沈. 沈實有力, 當下. 沈遲無力, 當溫. 浮緩者, 病自愈.”⁶⁰⁾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 “緩者, 風脈也. 厥陰脈微緩者, 邪傳厥陰, 熱氣已劇, 近於風也.”⁶¹⁾라고 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傷寒例』에서 瀉下와 溫中할 脈의 차이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厥陰病이 나올 때의 脈象은 『注解傷寒論』에서 “經曰 陰病見陽脈而生, 浮者陽也. 厥陰中風, 脈微浮, 爲邪氣還表, 向汗之時, 故云欲愈.”⁶²⁾라고 한 것을 더욱 밝힌 것이다.

④ 傳變 日數

太陽病의 期日에 대해서 小註에 “太陽受病, 當一二日發.”⁶³⁾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注解傷寒論』에 “太陽主表, 一日則太陽受邪, 至二日當傳陽明.”⁶⁴⁾이라고 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陽明病의 期日에 대해서 小註에 “太陽脈靜則不傳. 如脈數急, 欲吐者, 此寒邪變熱, 傳於陽明, 當二三日.”⁶⁵⁾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 “太陽受邪不

46) 李槿.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7.

47) 成無己. 仲景全書注解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119.

48) 李槿.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7.

49) 成無己. 仲景全書注解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118.

50) 李槿.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51)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52)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53) 李槿.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54)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55) 李槿.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56)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57)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58) 李槿.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59)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60) 李槿.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0.

61)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62) 成無己. 仲景全書注解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279.

63) 李槿.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7.

64) 成無己. 仲景全書注解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119.

65) 李槿.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已, 傳於陽明, 是當二三日發.”⁶⁶⁾이라고 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少陽病의 期日에 대해서 小註에 “少陽受病, 當三四日發.”⁶⁷⁾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 “二三日, 陽明之邪不已, 傳於少陽, 是當三四日發.”⁶⁸⁾이라고 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太陰病의 期日에 대해서 小註에 “太陰受病, 當四五日發.”⁶⁹⁾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 “自三陽傳於太陰, 是當四五日發也.”⁷⁰⁾라고 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少陰病의 期日에 대해서 小註에 “少陰受病, 當五六日發.”⁷¹⁾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 “四五日太陰之邪不已, 至五六日則傳於少陰也, 是少陰病當五六日發.”⁷²⁾이라고 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厥陰病의 期日에 대해서 小註에 “厥陰受病, 當六七日發.”⁷³⁾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 “當六七日發, 以少陰邪傳於厥陰.”⁷⁴⁾이라고 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六經病의 傳變 日數에 대해서 「經絡難拘日數」에서 “日雖多, 尙有表證, 而脈浮數, 猶當發汗. 日雖少, 已有裏證, 而脈沈實, 即當下之, 但隨證虛實與脈, 而汗下之.”⁷⁵⁾라고 하였는데, 『活人書』에서 “仲景云, 日數雖多, 但有表證而脈浮者, 由宜發汗. 日數雖少, 若有裏證而脈沈者, 即宜下之, 正應隨脈以汗下之.(傷寒固有始得病便變陽盛之證, 須便下之, 又有腠理寒, 一二日便成少陰病者, 須急溫之.)”⁷⁶⁾라고 하였다. 『增注類證活人書』에서 인용한 원문은 『注解傷寒論』에 있지 않고 『傷寒例』에 있다.

六經病의 傳變 日數에 대해서 「經絡難拘日數」에서 “又云 傷寒不加異氣 不傳經者, 七日, 足太陽病衰,

手太陽受之, 頭痛少愈. 八日, 足陽明病衰, 手陽明受之, 身熱少歇. 九日, 足少陽病衰, 手少陽受之, 耳聾微聞. 十日, 足太陰病衰, 手太陰受之, 腹減如故 則思飲食. 十一日, 足少陰病衰, 手少陰受之, 渴止舌乾已而嘔. 十二日, 足厥陰病衰, 手厥陰受之, 囊縱少腹微下, 大氣乃止. 病再傳六經, 有自安者.”⁷⁷⁾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서 “更不傳經, 不加異氣者, 至七日, 太陽病衰, 頭痛少愈也. 八日, 陽明病衰, 身熱少歇也. 九日, 少陽病衰, 耳聾微聞也. 十日, 太陰病衰, 腹減如故 則思飲食. 十一日, 少陰病衰, 渴止舌乾已而嘔也. 十二日, 厥陰病衰, 囊縱少腹微下, 大氣皆去.”⁷⁸⁾라고 한 내용과 『素問·熱論』의 내용을 절충하여 小註로 변형한 것이다.

⑤ 病機

㉠ 太陽病

太陽病 項痛, 腰脊強의 病機에 대해서 小註에 “凡言太陽證, 卽頭疼身熱脊強也. …… 以其脈上連風府, 故頭項背腰脊強.”⁷⁹⁾라고 하였는데, 『傷寒例』에서 “尺寸俱浮者, 太陽受病也. 當一二日發, 以其脈上連風府, 故頭項背腰脊強.”⁸⁰⁾, “太陽爲三陽之長, 其氣浮於外, 故尺寸俱浮, 是邪氣初入皮膚外在表也, 當一二日發. 風府穴名也, 項中央太陽之脈, 從巔入絡腦, 還出別下項, 是以上連風府. 其經循肩膊內俠脊, 抵腰中, 故病頭項痛, 腰脊強.”⁸¹⁾이라고 한 내용을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太陽病 身熱의 病機에 대해 “身熱者, 寒客皮毛, 鬱閉其陽, 而後發熱. … 蓋傷寒始於寒 而終成於熱也. 惟不發熱, 而但惡寒者, 邪發於陰也.”⁸²⁾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서 “人傷於寒, 則爲病熱, 謂始爲寒, 而終成熱也”⁸³⁾라고 하고, 『注解傷寒論』에서 “經曰 凡傷於寒, 則爲病熱, 爲寒氣客於經中, 陽經拂結而成熱也. 中風卽發熱者, 風爲陽也. 及傷寒云 或已發熱 或未發熱 以寒爲陰邪 不能卽熱 鬱而方變熱也.”⁸⁴⁾ “陽爲熱

66)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6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68)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6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70)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7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72)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73)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0.

74)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75)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1.

76)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114.

7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1.

78)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7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7.

80)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81)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8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87-1088.

83)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也, 陰爲寒也. 發熱而惡寒, 寒傷陽也. 無熱而惡寒, 寒傷陰也.”⁸⁵⁾라는 내용을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 陽明經

陽明病 目痛, 鼻乾, 身熱, 不眠의 病機에 대해 “以其經中客邪, 故目痛鼻乾身熱者, 陽明主肌肉, 邪甚則身前皆熱, 不眠者, 煩盛津乾胃氣不和也.”⁸⁶⁾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서 “其脈俠鼻者, 陽明脈起於鼻交頰中, 絡於目. 陽明之脈, 正上頰頰, 還出系目系. 身熱者, 陽明主身之肌肉. 鍼經曰 陽明氣盛, 則身以前皆熱; 目疼鼻乾者, 經中客邪也; 不得臥者, 胃氣逆不得從其道也. 內經曰 胃不和, 則臥不安.”⁸⁷⁾라는 내용을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 少陽經

少陽病證의 病機에 대해 “以其脈循脇, 絡於耳, 故風熱上壅不利, 則耳聾脇痛, 寒熱往來, 不食, 嘔而口苦乾, 目眩.”⁸⁸⁾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 “胸脇痛而耳聾者, 經壅而不利也.”⁸⁹⁾라는 내용에서 發明한 것이다.

㉢ 太陰經

太陰病證의 病機에 대해서 “以其脈布胃中, 絡於咽嗌, 故腹滿或痛, 而嗌喉下乾燥. 或大便不通, 小便如常, 或自利手足溫而渴者, 爲傳經腑熱. 或自利不渴, 手足冷者, 爲直中陰經. 或因內傷飲食, 冷氣入脾, 必腹痛, 胸膈不快.”⁹⁰⁾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 “邪入於陰, 則漸成熱, 腹滿而嗌乾者, 脾經壅而成熱也.”⁹¹⁾라는 내용을 發明한 것이다.

㉣ 少陰經

少陰病證의 病機에 대해서 “以其脈起於足心, 貫腎, 絡於肺繫, 故舌乾口燥而渴, 或自利清水, 心痛腹脹, 或大便閉艱, 不欲厚衣者, 皆熱入裏之深也. 若厥逆畏寒, 欲吐不吐, 腹痛自利, 小便白色, 或乾嘔, 亡陽咽痛, 脈

微欲寐者, 乃陰毒入臟之深也. 或下利體痛咳嘔者, 水氣也. 或飯食入口則吐.”⁹²⁾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서 “人傷於寒, 則爲病熱, 謂始爲寒, 而終成熱也. 少陰爲病, 口燥舌干而渴, 邪傳入裏, 熱氣漸深也.”⁹³⁾라고 한 내용을 더욱 발명한 것이다.

㉤ 厥陰經

厥陰病證의 病機에 대해서 “以其脈循陰器, 絡於肝, 故唇青舌卷, 或煩滿者, 胸中氣滿急也. 或囊拳者, 陰囊縮也. 在女子則陰戶急, 痛引小腹, 此傳經厥陰風熱毒, 深於內也. 肝木移熱剋脾, 脾受賊邪, 五臟六腑皆困, 營衛不通. 耳聾囊縮而厥, 水漿不入, 不知人則死. 速下以救, 五死一生. 或下利譫語者, 內有燥屎也. 仍宜下之. 或嘔而發熱者, 和之. 或發熱惡寒如瘧, 囊不縮, 脈微浮微緩, 胃之脈, 脾氣既全, 不受賊邪, 營衛將復, 水升火降, 寒熱作而大汗解矣. 或下利腹脹身疼者, 當先救表, 而後溫裏. 若下利清穀, 大汗出而厥, 四肢疼, 小腹拘急, 或乾嘔吐沫, 或氣衝心痛, 發熱消渴, 吐衄, 皆厥陰寒證也. 宜溫之.”⁹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例』에서 “以少陰邪傳於厥陰, 煩滿而囊縮者, 熱氣聚於內也.”⁹⁵⁾라고 한 내용을 더욱 發明한 것이다.

㉥ 所屬 病證

㉥-1 太陽 所屬諸證

太陽에 소속된 여러 病證에 대해서 “或熱多寒少, 或不大便而泉清頻數, 或熱結膀胱, 溺澁, 或汗多溺難, 或汗後不解, 或汗漏不止, 或過經不解, 或蓄血發黃, 或喘, 或嘔, 皆太陽所主.”⁹⁶⁾라고 하였다.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을 기준으로 ‘熱多寒少’와 관련한 조문은 23조 “太陽病, 得之八九日, 如瘧狀, 發熱惡寒, 熱多寒少, 其人不嘔, 清便欲自可, 一日二三度發, 脈微緩者, 爲欲愈也, 脈微而惡寒者, 此陰陽俱虛, 不可更發汗更下更吐也, 面色反有熱色者, 未欲解也, 以其不能得少汗出, 身必痒, 宜桂枝麻黃各半湯.”⁹⁷⁾과

84) 成無己. 仲景全書注解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p.118-119.

85) 成無己. 仲景全書注解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120.

8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87)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8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88-1089.

89)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9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91)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9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89-1090.

93)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9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90-1091.

95)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94.

9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97)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27조 “太陽病, 發熱惡寒, 熱多寒少, 脈微弱者, 此無陽也, 不可大發汗, 宜桂枝二越婢一湯.”⁹⁸⁾이 있다.

또한 ‘不大便而泉清頻數’과 관련한 조문은 56조 “傷寒不大便, 六七日, 頭痛有熱者, 與承氣湯, 其小便清者, 知不在裏, 仍在表也, 當須發汗, 若頭痛者, 必衄, 宜桂枝湯.”⁹⁹⁾이 있다.

‘熱結膀胱, 溺澀’과 관련한 조문은 106조 “太陽病不解, 熱結膀胱, 其人如狂, 血自下, 血自下者愈, 其外不解者, 尚未可攻, 當先解其外, 外解已, 但小腹急結者, 乃可攻之, 宜桃核承氣湯.”¹⁰⁰⁾이 있다.

‘汗多溺難’와 관련한 조문은 20조 “太陽病, 發汗, 遂漏不止, 其人惡風,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者, 桂枝加附子湯主之.”¹⁰¹⁾가 있다.

‘汗後不解’와 관련한 조문은 16조 “太陽病三日, 已發汗, 若吐, 若下, 若溫鍼, 仍不解者, 此爲壞病, 桂枝不中與之也, 觀其脈證, 知犯何逆, 隨證治之.”¹⁰²⁾와 24조 “太陽病初服桂枝湯, 反煩不解者, 先刺風池, 風府, 却與桂枝湯則愈.”¹⁰³⁾와 25조 “服桂枝湯, 大汗出, 脈洪大者, 與桂枝湯如前法, 若形如瘕, 一日再發者, 汗出必解, 宜桂枝二麻黃一湯.”¹⁰⁴⁾과 26조 “服桂枝湯, 大汗出後, 大煩渴不解, 脈洪大者, 白虎加人參湯主之.”¹⁰⁵⁾와 67조

“發汗, 病不解, 反惡寒者, 虛故也, 芍藥甘草附子湯主之.”¹⁰⁶⁾와 69조 “發汗若下之, 病仍不解, 煩躁者, 茯苓回逆湯主之.”¹⁰⁷⁾와 70조 “發汗後, 惡寒者, 虛故也, 不惡寒, 但熱者, 實也, 當和胃氣, 與調胃承氣湯.”¹⁰⁸⁾과 82조 “太陽病, 發汗, 汗出不解, 其人仍發熱, 心下悸, 頭眩, 身動, 振振欲擗地者, 玄武湯主之.”¹⁰⁹⁾와 114조 “太陽病, 以火熏之, 不得汗, 其人必躁, 到經不解, 必清血, 名爲火邪.”¹¹⁰⁾와 164조 “傷寒大下後, 復發汗, 心下痞, 惡寒者, 表未解也, 不可攻痞, 當先解表, 表解乃可攻痞, 解表宜桂枝人參湯, 攻痞宜大黃黃連瀉心湯.”¹¹¹⁾과 165조 “傷寒發熱, 汗出不解, 心中痞硬, 嘔吐而下利者, 大柴胡湯主之.”¹¹²⁾ 등이 있다.

‘汗漏不止’와 관련한 조문은 20조 “太陽病, 發汗, 遂漏不止, 其人惡風,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者, 桂枝加附子湯主之.”¹¹³⁾가 있다.

‘過經不解’와 관련한 조문은 103조 “太陽病, 過經十餘日, 反二三下之, 後四五日, 柴胡證仍在者, 先與小柴胡湯, 嘔不止, 心下急, 鬱鬱微煩者, 爲未解也, 與大柴胡湯下之則愈.”¹¹⁴⁾와 105조 “傷寒, 十三日, 不解, 過

한의학사. 2005. p.80.

98)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88.

99)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31.

100)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95.

101)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76.

102)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71.

103)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83.

104)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85.

105)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87.

106)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48.

107)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51.

108)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53.

109)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68.

110)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206.

111)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275.

112)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276.

113)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76.

114)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經時譫語者，以有熱也，當以湯下之。”¹¹⁵⁾와 123조 “太陽病，過經十餘日，心下溫溫欲吐，而胸中痛，大便反澀，腹微滿，鬱鬱微煩，先此時，自極吐下者，與調胃承氣湯，若不爾者，不可與，但欲嘔，胸中痛，微澀者，此非胡柴湯證，以嘔故知極吐也。”¹¹⁶⁾ 등이 있다.

‘蓄血發黃’과 관련한 조문은 『注解傷寒論』에 의하면 106조 “太陽病不解，熱結膀胱，其人如狂，血自下，血自下者愈，其外不解者，尚未可攻，當先解其外，外解已，但小腹急結者，乃可攻之，宜桃核承氣湯。”¹¹⁷⁾과 123조 “太陽病，六七日，表證仍在，脈微而沈，反不結胸，其人發狂者，以熱在下焦，小腹當硬滿，小便自利者，下血乃愈，所以然者，以太陽隨症，瘀熱在裏故也，抵當湯主之。”¹¹⁸⁾와 125조 “太陽病，身黃，脈沈結，小腹硬，小便不利者，爲無血也，小便自利，其人如狂者，血證諦也，抵當湯主之。”¹¹⁹⁾와 126조 “傷寒有熱，少腹滿，應小便不利，今反利者，爲有血也，當可下之，不可餘藥，宜抵當丸。”¹²⁰⁾ 등이 있다.

‘喘’과 관련한 조문은 18조 “喘家，作桂枝湯，加厚朴杏子佳。”¹²¹⁾와 34조 “太陽病，桂枝證，醫反下之，利遂不止脈促者，表不解也，喘而汗出者，葛根黃連黃芩湯主之。”¹²²⁾와 35조 “太陽病，頭痛發熱，身疼腰痛，骨

節疼痛，惡風無汗而喘者，麻黃湯主之。”¹²³⁾와 36조 “太陽與陽明合病，喘而胸滿者，不可下，宜麻黃湯。”¹²⁴⁾과 40조 “傷寒表不解，心下水氣，乾嘔發熱而效，或渴，或利，或噎，小便不利，少腹滿，或喘者，小青龍湯主之。”¹²⁵⁾와 41조 “傷寒心下水氣，欬而微喘，發熱不渴，服湯已，渴者，此寒去欲解也，小青龍湯主之。”¹²⁶⁾와 43조 “太陽病下之，微喘者，表未解故也，桂枝加厚朴杏子湯主之。”¹²⁷⁾와 63조 “發汗後，喘家不可更行桂枝湯，汗出而喘，無大熱者，可與麻黃杏仁甘草石膏湯。”¹²⁸⁾과 75조 “未持脈時，病人叉手自冒心，師因教試令欬，而不欬者，此必兩耳聾無聞也，所以然者，重以發汗，虛故也，發汗後，飲水多必喘，以水灌之亦喘。”¹²⁹⁾과 111조 “太陽病中風，以火劫發汗，邪風被火熱，血氣流溢，失其常度，兩相熏灼，其身必發黃，陽盛則欲衄，陰虛則大便硬，陰陽俱虛竭，身體則枯燥，但頭汗出，劑頸而還，腹滿微喘，口乾咽爛，或不大便，久則譫語，甚者至噦，手足躁擾，捻衣摸床，小便利者，其人可治。”¹³⁰⁾와 163조 “喘家，下後不可更行桂枝湯，若汗出而喘，無大熱者，可與麻黃杏仁甘草石膏湯。”¹³¹⁾ 등이 있다.

한의학사. 2005. p.191.

115)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94.

116)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216.

117)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95.

118)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216.

119)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219.

120)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220.

121)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74.

122)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04.

123)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05.

124)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07.

125)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13.

126)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16.

127)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18.

128)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42.

129)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60.

130)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202.

131)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嘔’와 관련한 조문은 3조 “太陽病或已發熱，或未發熱，必惡寒體痛，嘔逆，脈陰陽俱緊者，名曰傷寒。”¹³²⁾과 12조 “太陽中風，脈陽浮而陰弱，陽浮者熱自發，陰弱者汗自出，齏齏惡寒，淅淅惡風，翕翕發熱，鼻鳴乾嘔者，桂枝湯主之。”¹³³⁾와 22조 “太陽與陽明合病，不下利，但嘔者，葛根加半夏湯主之。”¹³⁴⁾와 40조 “傷寒表不解，心下有水氣，乾嘔發熱而欬，或渴，或利，或噎，小便不利，少腹滿，或喘者，小青龍湯主之。”¹³⁵⁾와 76조 “發汗後，水藥不得入口爲逆，若更發汗，必吐下不止，發汗吐下後，虛煩不得眠，若劇者，必反復顛倒，心中懊憹，梔子豉湯主之，若少氣者，梔子甘草豉湯主之，若嘔者，梔子生姜豉湯主之。”¹³⁶⁾와 96조 “傷寒五六日，中風，往來寒熱，胸脅苦滿，默默不欲飲食，心煩，喜嘔，或脇中煩而不嘔，或渴，或腹中痛，或胸下痞硬，或心下悸，小便不利，或不渴，身有微熱，或欬者，小柴胡湯主之。”¹³⁷⁾와 97조 “血弱氣盡，腠理開，邪氣因入，與正氣相搏，結於胸下，正邪分爭，往來寒熱，休作有時，嘔嘔不欲飲食，藏府相違，其病必下，邪高病下，故使嘔也，小柴胡湯主之，服柴胡湯已，渴者，屬陽明，以法治之。”¹³⁸⁾와 98조 “得病六七日，脈遲浮弱，惡風寒，手足溫，醫二三下之，不能食，而脇下滿痛，面目及身黃，頸項強，小便黃者，與柴胡湯，後必下重，本渴飲水而嘔者，柴胡湯不中與

也，食穀者噦。”¹³⁹⁾과 103조 “太陽病，過經十餘日，反二三下之，後四五日，柴胡證仍在者，先與小柴胡湯，嘔不止，心下急，鬱鬱微煩者，爲未解也，與大柴胡湯下之則愈。”¹⁴⁰⁾와 104조 “傷寒，十三日不解，胸脇滿而嘔，日晡所，發潮熱，已而微利，此本柴胡，下之而不得利，今反利者，知醫以丸藥下之，此非其治也，潮熱者，實也，先宜服小柴胡湯以解外，後以柴胡加芒硝湯主之。”¹⁴¹⁾와 110조 “太陽病，二日，反躁，反熨背，而大汗出，大熱入胃，胃中水竭，躁煩，必發譫語，十餘日，振慄，自下利者，此爲欲解，故其發汗，從腰以下不得汗，欲小便不得，反嘔欲失溲，足下惡風，大便硬，小便當數，而反不數，及不多，大便已，頭卓然而痛，其人足心必熱，氣下流故也。”¹⁴²⁾와 123조 “太陽病，過經十餘日，心下溫溫欲吐，而胸中痛，大便反溇，腹微滿，鬱鬱微煩，先此時，自極吐下者，與調胃承氣湯，若不爾者，不可與，但欲嘔，胸中痛，微溇者，此非胡柴湯證，以嘔故知極吐也。”¹⁴³⁾와 146조 “傷寒六七日，發熱微惡寒，支節煩疼，微嘔，心下支結，外證未去者，柴胡桂枝湯主之。”¹⁴⁴⁾와 149조 “傷寒五六日，嘔而發熱者，柴胡湯證具，而以他藥下之，柴胡證仍在者，復與柴胡湯，此雖已下之不爲逆也，必蒸蒸而振，却發熱汗出而解，若心下滿而硬痛者，大陷胸湯主之，但滿而不痛者，此爲痞，柴胡不中與之，宜半夏瀉心湯。”¹⁴⁵⁾과 152조 “太陽中風，下利嘔逆，表解者，

한의학사. 2005. p.273.

132)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49.

133)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63.

134)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78.

135)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13.

136)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61.

137)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81.

138)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84.

139)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85.

140)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91.

141)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193.

142)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200.

143)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216.

144)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248.

145) 成無己 저.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학사. 2005. p.253.

乃可攻之,其人繫繫汗出,發作有時,頭痛,心下痞硬滿,引脅下痛,乾嘔短氣,汗出不惡寒者,此表解裏未和也,十棗湯主之.”¹⁴⁶⁾와 158조 “傷寒中風,醫反下之,其人下利,日數十行,穀不化,腹中雷鳴,心下痞硬而滿,乾嘔心煩不得安,醫見心下痞,謂病不盡,復下之,其痞益甚,此非結熱,但以胃中虛,客氣上逆,故使硬也,甘草瀉心湯主之.”¹⁴⁷⁾와 165조 “傷寒發熱,汗出不解,心中痞硬,嘔吐而下利者,大柴胡湯主之.”¹⁴⁸⁾와 172조 “太陽與少陽合病,自下利者,與黃芩湯,若嘔者,黃芩加半夏生姜湯主之.”¹⁴⁹⁾와 173조 “傷寒,胸中有熱,胃中有邪氣,腹中痛,欲嘔吐者,黃連湯主之.”¹⁵⁰⁾ 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은 ‘熱多寒少’, ‘不大便而泉清頻數’, ‘熱結膀胱,溺澀’, ‘汗多溺難’, ‘汗後不解’, ‘汗漏不止’, ‘過經不解’, ‘蓄血發黃’, ‘喘’, ‘嘔’에 대한 『注解傷寒論』의 내용을 『醫學入門』에서 太陽病으로 총괄한 것이다.

㉠ 陽明經 所屬諸證

『醫學入門』에서 陽明에 소속된 여러 病證에 대해서 “或瘀血發黃. 或下血譫語. 或胸煩懊憹, 皆此經所主. 然亦有裏寒下利, 或寒氣結積而為痼瘕者, 不可不知.”¹⁵¹⁾라고 하였다.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을 기준으로 ‘瘀血發黃’과 관련한 조문은 187조 “傷寒脈浮而緩, 手足自溫者, 是為繫在太陰, 太陰者, 身當發黃, 若小便利者, 不能發黃, 至七八日, 大便秘者, 為陽明病也.”와 199조 “陽明病無汗, 小便不利, 心下懊憹者, 身必發黃.”과 200조 “陽明病, 被火, 額上微汗出, 而小便利者, 必發黃.”과 236조 “陽明病, 發熱汗出者, 此為熱越, 不能發黃也,

但頭汗出, 身無汗, 劑頸而還, 小便不利, 渴引水漿者, 此為瘀熱在裏, 身必發黃, 茵陳蒿湯主之.”와 262조 “傷寒, 瘀熱在裏, 身必發黃, 麻黃連軹赤小豆湯主之.” 등이 있다.

‘下血譫語’와 관련한 조문은 216조 “陽明病, 下血譫語者, 此為熱入血室, 但頭汗出者, 刺期門, 隨其實而瀉之, 澱然汗出則愈.”가 있다.

‘胸煩懊憹’와 관련한 조문은 199조 “陽明病無汗, 小便不利, 心下懊憹者, 身必發黃.”과 221조 “陽明病, 脈浮而緊, 咽燥口苦, 腹滿而喘, 發熱汗出, 不惡寒, 反惡熱, 身重, 若發汗則躁, 心憤憤, 反譫語, 若加溫鍼, 必怵惕煩躁不得眠, 若下之, 則胃中空虛, 客氣動膈, 心中懊憹, 舌上胎者, 梔子豉湯主之.”와 228조 “陽明病, 下之, 其外有熱, 手足溫, 小結胸, 心中懊憹, 飢不能食, 但頭汗出者, 梔子豉湯主之.”와 238조 “陽明病, 下之, 心中懊憹而煩, 胃中有燥屎者, 宜大承氣湯, 若有燥屎者, 可攻, 腹微滿, 初頭硬, 後必溏者, 不可攻之.” 등이 있다.

이외에도 陽明病의 寒證은 ‘裏寒下利’와 ‘寒氣結積而為痼瘕’가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裏寒下利’와 관련한 조문은 225조 “脈浮而遲, 表熱裏寒, 下利清穀者, 四逆湯主之.”가 있고, ‘寒氣結積而為痼瘕’와 관련한 조문은 191조 “陽明病, 若中寒者, 不能食, 小便不利, 手足澱然汗出, 此欲作固瘕, 必大便初硬後溏, 所以然者, 以胃中冷, 水穀不別故也.”가 있다.

또한 『醫學入門』에서 陽明病의 傳經 여부에 대해서 “太陽未罷者, 發熱惡寒, 太陽已罷者, 不惡寒而反惡熱.”¹⁵²⁾라고 하였는데, 이는 182조 “問曰, 陽明病外證云何, 答曰, 身熱汗自出, 不惡寒, 反惡熱也.”와 183조 “問曰, 病有得之一日, 不發熱而惡寒者, 何也, 答曰, 雖得之一日, 惡寒將自罷, 即自汗出而惡熱也.”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陽明病의 分類에 대해서 “煩渴作嘔, 津乾便鞭, 或即狂言, 謂之正陽明. 少陽陽明, 脇滿, 不大便而嘔.”¹⁵³⁾라고 하였는데, 이는 陽明病 179조 “問曰, 病有太陽陽明者, 有正陽陽明, 有少陽陽明, 何謂也, 答曰, 太陽陽明者, 脾約是也, 正陽陽明者, 胃家實是也, 少陽陽明者, 發汗利小便已, 胃中燥煩實, 大便難是也.”라는

146) 成無己 著.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문화사. 2005. p.257.
 147) 成無己 著.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문화사. 2005. p.266.
 148) 成無己 著.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문화사. 2005. p.276.
 149) 成無己 著.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문화사. 2005. p.284.
 150) 成無己 著.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문화사. 2005. p.285.
 15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15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153)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㉔ 少陽經 所屬諸證

『醫學入門』에서 少陽에 소속된 여러 病證에 대해서 “似瘧，婦人血結，皆此經所主。”¹⁵⁴⁾라고 하였다.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을 기준으로 ‘似瘧’과 관련한 조문은 太陽病 篇 23조 “太陽病，得之八九日，如瘧狀，發熱惡寒，熱多寒少，其人不可嘔，清便欲自可，一二三度發，脈微緩者，爲欲愈也，脈微而惡寒者，此陰陽俱虛，不可更發汗更下更吐也，面色反有熱色者，未欲解也，以其不能得少汗出，身必痒，宜桂枝麻黃各半湯。”과 25조 “服桂枝湯，大汗出，脈洪大者，與桂枝湯如前法，若形如瘧，一日再發者，汗出必解，宜桂枝二麻黃一湯。”과 144조 “婦人中風，七八日，續得寒熱，發作有時，經水適斷者，此爲熱入血室，其血必結，故使如瘧狀，發作有時，小柴胡湯主之。”와 陽明病 篇 240조 “病人煩熱，汗出則解，又如瘧狀，日晡所發熱者，屬陽明也，脈實者，宜下之，脈浮虛者，宜發汗，下之與大承氣湯，發汗宜桂枝湯。”등이 있다. 그런데 이상의 4개의 조문은 『注解傷寒論』에는 少陽病 篇에 속하지 않고 太陽病，陽明病 篇에 속하나 李梴은 少陽病의 범주에 속한다고 인식하였다.

‘婦人血結’과 관련된 조문은 太陽病 篇 144조 “婦人中風，七八日，續得寒熱，發作有時，經水適斷者，此爲熱入血室，其血必結，故使如瘧狀，發作有時，小柴胡湯主之。”가 있다.

또한 “若不嘔吐，而能食者，爲三陰不受邪也。若身無大熱，躁悶者，陽去入陰，無疑矣。”라고 하였는데, 이는 『注解傷寒論』 少陽病 篇 266조 “傷寒三日，三陽爲盡，三陰當受邪，其人反能食而不嘔，此爲三陰不受邪也.”과 관련이 있다.

㉕ 太陰經 所屬諸證

『醫學入門』에서 太陰에 소속된 여러 病證에 대해서 “或大便不通，小便如常，或自利手足溫而渴者，爲傳經腑熱，或自利不渴，手足冷者，爲直中陰經。或因內傷飲食，冷氣入脾，必腹痛，胸膈不快。然太陰，乃三陽之終，三陰之始。陽經，表證未盡，宜汗。半表裏，胸滿多痰，宜吐。傳經裏熱，宜下。直中陰經，宜溫。調脾勝邪，正在此關。”¹⁵⁵⁾이라고 하였다.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을 기준으로 ‘大便不通，小便如常’과 관련된 조문은 陽明病 篇 233조 “陽明病自汗出，若發汗，小便自利者，此爲津液內竭，雖硬不可攻之，當須自欲大便，宜蜜煎導而通之，若土瓜根，及大猪膽汁，皆可爲導。”와 247조 “跌陽脈浮而濇，浮則胃氣強，濇則小便數，浮濇相搏，大便則難，其脾爲約，麻子仁丸主之.”가 있다.

‘自利手足溫而渴’과 관련된 조문은 273조 “太陰之爲病，腹滿而吐，食不下，自利益甚，時腹自痛，若下之，必胸下結硬.”과 278조 “傷寒脈浮而緩，手足自溫者，繫在太陰，當發身黃，若小便自利者，不能發黃，至七八日，雖暴煩，下利日十餘行，必自止，以脾家實，腐穢當去故也.”가 있다.

‘自利不渴，手足冷’과 관련된 조문은 277조 “自利不渴者，屬太陰，其藏有寒故也，當溫之，宜服四逆輩.”가 있다.

‘因內傷飲食，冷氣入脾，必腹痛，胸膈不快’와 관련된 조문은 278조 “傷寒脈浮而緩，手足自溫者，繫在太陰，當發身黃，若小便自利者，不能發黃，至七八日，雖暴煩，下利日十餘行，必自止，以脾家實，腐穢當去故也.”가 있다.

李梴은 이상과 같이 太陰病을 傳經腑熱과 直中陰經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大便不通，小便如常’, ‘自利手足溫而渴’는 ‘傳經腑熱’에 해당하며, ‘自利不渴，手足冷’은 直中陰經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㉖ 少陰經 所屬諸證

『醫學入門』에서 少陰에 소속된 여러 病證에 대해서 “或自利清水，心痛腹脹，或大便閉鞭，不欲厚衣者，皆熱入裏之深也。若厥逆畏寒，欲吐不吐，腹痛自利，小便白色，或乾嘔，亡陽咽痛，脈微欲寐者，乃陰毒入臟之深也。或下利體痛咳嘔者，水氣也。或飯食入口，則吐，脈弦遲，厥逆心下實者，不可下也，宜吐之。或脈沈發熱者，汗之。蓋有初得病，直攻少陰，不先自太陽，傳次而入也。”¹⁵⁶⁾라고 하였다.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을 기준으로 ‘自利清水，心痛腹脹’과 관련한 조문은 321조 “少陰病，自利清水，

155)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15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89-1090.

15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色純青, 心下必痛, 口乾燥者, 可下之, 宜大承氣湯.”이 있다.

‘大便閉鞭’와 관련한 조문은 321조 “少陰病, 自利清水, 色純青, 心下必痛, 口乾燥者, 可下之, 宜大承氣湯.”과 322조 “少陰病, 六七日, 腹脹不大便者, 急下之, 宜大承氣湯.”과 이 있다.

‘不欲厚衣’와 관련한 조문은 289조 “少陰病, 惡寒而踰, 時自煩, 欲去衣被者, 可治.”가 있다.

‘厥逆畏寒, 欲吐不吐, 腹痛自利, 小便白色’와 관련한 조문은 282조 “少陰病, 欲吐不吐, 心煩但欲寐, 五六日, 自利而渴者, 屬少陰也, 虛故引水自救, 若小便色白者, 少陰病形悉具, 小便白者, 以下焦虛, 有寒, 不能制水, 故令色白也.”가 있다.

‘乾嘔’와 관련한 조문은 315조 “少陰病, 下利, 脈微者, 與白通湯, 利不止, 厥逆無脈, 乾嘔煩者, 白通加豬膽汁湯主之, 服湯, 脈暴出者死, 微續者生.”과 317조 “少陰病, 下利清穀, 裏寒外熱, 手足厥逆, 脈微欲絕, 身反不惡寒, 其人面色赤, 或腹痛, 或乾嘔, 或咽痛, 或利止脈不出者, 通脈四逆湯主之.”와 324조 “少陰病, 飲食入口則吐, 心中溫溫欲吐, 復不能吐, 始得之, 手足寒, 脈弦遲. 脈弦遲者, 此胸中實, 當吐之, 不可下也, 若膈上有寒飲, 乾嘔者, 不可吐也, 當溫之, 宜四逆湯.”이 있다.

‘亡陽’과 관련한 조문은 283조 “病人脈陰陽俱緊, 反汗出者, 亡陽也, 此屬少陰, 法當咽痛, 而復吐利.”가 있다.

‘咽痛’과 관련한 조문은 283조 “病人脈陰陽俱緊, 反汗出者, 亡陽也, 此屬少陰, 法當咽痛, 而復吐利.”와 310조 “少陰病, 下利, 咽痛, 胸滿心煩者, 豬膚湯主之.”와 311조 “少陰病, 二三日, 咽痛者, 可與甘草湯, 不差, 與桔梗湯.”이 있다.

‘脈微欲寐’와 관련한 조문은 281조 “少陰之爲病, 脈微細, 但欲寐也.”와 282조 “少陰病, 欲吐不吐, 心煩但欲寐, 五六日, 自利而渴者, 屬少陰也, 虛故引水自救, 若小便色白者, 少陰病形悉具.”와 300조 “少陰病, 脈微細沈, 但欲臥, 汗出不煩, 自欲吐, 至五六日自利, 復煩躁不得臥寐者, 死.”가 있다.

‘下利’와 관련된 조문은 284조 “少陰病, 欬而下利, 譫語者, 被火氣劫故也, 小便必難, 以強責少陰汗也.”와 287조 “少陰病, 脈緊, 至七八日, 自下利, 脈暴微, 手足

反溫, 脈緊反去者, 爲欲解也, 雖煩下利, 必自愈.”와 288조 “少陰病, 下利, 若利自止, 惡寒而踰臥, 手足溫者, 可治.”와 305조 “少陰病, 身體痛, 手足寒, 骨節痛, 脈沈者, 附子湯主之.”와 306조 “少陰病, 下利便膿血者, 桃花湯主之.”와 307조 “少陰病, 二三日至四五日, 腹痛, 小便不利, 下利不止, 便膿血者, 桃花湯主之.”와 308조 “少陰病, 下利便膿血者, 可刺.”와 310조 “少陰病, 下利, 咽痛, 胸滿心煩者, 豬膚湯主之.”가 314조 “少陰病, 下利, 白通湯主之.”와 315조 “少陰病, 下利, 脈微者, 與白通湯, 利不止, 厥逆無脈, 乾嘔煩者, 白通加豬膽汁湯主之, 服湯, 脈暴出者死, 微續者生.”과 316조 “少陰病, 二三日不已, 至四五日, 腹痛, 小便不利, 四肢沈重疼痛, 自下利自下利者, 此爲有水氣也, 其人或欬, 或小便利, 或下利, 或嘔者, 玄武湯主之.”와 317조 “少陰病, 下利清穀, 裏寒外熱, 手足厥逆, 脈微欲絕, 身反不惡寒, 其人面色赤, 或腹痛, 或乾嘔, 或咽痛, 或利止脈不出者, 通脈回逆湯主之.”와 319조 “少陰病, 下利六七日, 欬而嘔渴, 心煩不得眠者, 豬苓湯主之.”와 325조 “少陰病, 下利, 脈微瀉, 嘔而汗出, 必數更衣, 反少者, 當溫其背上, 灸之.”가 있다.

이상의 下利와 관련된 조문 중에 ‘下利 咳嘔’와 관련된 조문은 284조 “少陰病, 欬而下利, 譫語者, 被火氣劫故也, 小便必難, 以強責少陰汗也.”와 319조 “少陰病, 下利六七日, 欬而嘔渴, 心煩不得眠者, 豬苓湯主之.”와 325조 “少陰病, 下利, 脈微瀉, 嘔而汗出, 必數更衣, 反少者, 當溫其背上, 灸之.”가 있다.

또한 이상의 下利와 관련된 조문 중에 ‘下利 體痛’과 관련된 조문은 305조 “少陰病, 身體痛, 手足寒, 骨節痛, 脈沈者, 附子湯主之.”와 316조 “少陰病, 二三日不已, 至四五日, 腹痛, 小便不利, 四肢沈重疼痛, 自下利自下利者, 此爲有水氣也, 其人或欬, 或小便利, 或下利, 或嘔者, 玄武湯主之.”가 있다.

‘飯食入口, 則吐, 脈弦遲, 厥逆心下實者, 不可下也, 宜吐之.’와 관련한 조문은 324조 “少陰病, 飲食入口則吐, 心中溫溫欲吐, 復不能吐, 始得之, 手足寒, 脈弦遲. 脈弦遲者, 此胸中實, 當吐之, 不可下也, 若膈上有寒飲, 乾嘔者, 不可吐也, 當溫之, 宜四逆湯.”이 있다.

‘脈沈發熱者, 汗之’와 관련한 조문은 301조 “少陰病, 始得之, 反發熱, 脈沈者, 麻黃細辛附子湯主之.”와

302조 “少陰病，得之二三日，麻黃附子甘草湯，微發汗，以二三日無證，故微發汗也。”가 있다.

李梴은 이상과 같이 少陰病을 ‘熱入裏之深’과 ‘陰毒入臟之深’과 ‘水氣’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치법으로 溫法, 攻下 이외에 吐法을 써야할 경우와 發汗을 써야 할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㊸ 厥陰經 所屬諸證

『醫學入門』에서 厥陰에 소속된 여러 病證에 대해서 “或下利譫語者，內有燥屎也，仍宜下之。或嘔而發熱者，和之。或發熱惡寒如瘧，囊不縮，脈微浮微緩，胃之脈，脾氣既全，不受賊邪，營衛將復，水升火降，寒熱作而大汗解矣。或下利腹脹身疼者，當先救表，而後溫裏。若下利清穀，大汗出而厥，四肢疼，小腹拘急。或乾嘔吐沫，或氣衝心痛，發熱消渴，吐衄，皆厥陰寒證也，宜溫之。”¹⁵⁷⁾라고 하였다.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을 기준으로 ‘下利譫語者，內有燥屎也，仍宜下之.’와 관련한 조문은 374조 “下利，譫語者，有燥屎也，宜小承氣湯.”이 있다.

‘嘔而發熱者，和之.’와 관련한 조문은 379조 “嘔而發熱者，小柴胡湯主之.”가 있다.

‘發熱惡寒如瘧，囊不縮’과 관련한 조문은 『注解傷寒論』에는 없고 『傷寒例』에 “十二日厥陰病衰，囊縱，少腹微下，大氣皆去，病人精神爽慧也.”라고 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脈微浮 微緩’과 관련한 조문은 327조 “厥陰中風，脈微浮，爲欲愈，不浮爲未愈.”가 있다.

‘下利腹脹身疼者，當先救表，而後溫裏.’와 관련한 조문은 372조 “下利，腹脹滿，身體疼痛者，先溫其裏，乃攻其表，溫裏宜四逆湯，攻表宜桂枝湯.”이 있다.

‘下利清穀，四肢疼，小腹拘急.’과 관련한 조문은 353조 “大汗出熱不去，內拘急，四肢疼，又下利，厥逆而惡寒者，四逆湯主之.”가 있고, ‘下利清穀，大汗出而厥’과 관련한 조문은 370조 “下利清穀，裏寒外熱，汗出而厥者，通脈四逆湯主之.”가 있다.

‘乾嘔吐沫’과 관련한 조문은 378조 “乾嘔吐涎沫，頭痛者，吳茱萸湯主之.”가 있다.

‘或氣衝心痛，發熱消渴，吐衄.’와 관련한 조문은 388조 “傷寒脈微而厥，至七八日膚冷，其人躁無暫安時

者，此爲藏厥，非爲蚘厥也，蚘厥者，其人當吐蚘，令病者靜，而復時煩，此爲藏寒，蚘上入其腸，故煩，須臾復止，得食而嘔，又煩，煩者蚘聞食臭出，其人當自吐蚘，蚘厥者，烏梅丸主之，又主久利.”가 있다.

李梴은 이상과 같이 厥陰病의 治法으로 攻下, 和解, 先救表 後溫裏, 溫裏를 써야 할 경우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王叔和가 『傷寒論』을 改編한 六經所屬 病證을 少陽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바꾸지 않고 『注解傷寒論』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㊹ 風邪와 寒邪

太陽病의 風邪와 寒邪의 차이점에 대해서 「寒傷[榮]而 風傷[衛], 太陽爲之首爾」에서 “榮行脈中，在血脈，其病深。衛行脈外，在皮膚，其病淺。榮，血陰也。陰，主閉藏，故寒喜傷榮 而無汗。衛 氣陽也。陽，主開泄，故風喜傷衛 而有汗.”¹⁵⁸⁾이라 하였다.

『注解傷寒論』에서 “風，陽也。寒，陰也。風則傷衛，發熱，汗出，惡風者，衛中風。榮病，發熱，無汗，不惡風而惡寒；衛病，則發熱，汗出，不惡寒而惡風。以衛爲陽，衛外者也。病則不能衛固其外，而皮膚疏，故汗出而惡風也.”¹⁵⁹⁾라고 한 내용을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六經의 傷風證에 대해서 「經可解而[腑]可下 陽明爲之主焉」에서 “然豈獨太陽，爲榮衛之會，而有風寒之別乎。陽明，善飢，爲傷風，不食，爲傷寒。少陽，耳聾胸滿而煩，爲傷風，口苦咽乾目眩，爲傷寒。三陰，傷風，但四肢煩疼耳。”¹⁶⁰⁾이라 하였다.

陽明 傷風證과 傷寒證의 차이에 대해서 『注解傷寒論』에서 189조 “陽明中風，口苦咽乾，腹滿微喘，發熱惡寒，脈浮而緊，若下之，則腹滿小便難也.”와 190조 “陽明病，若能食，名中風，不能食，名中寒.”이라고 하였고, 少陽病의 傷風證과 傷寒證의 차이에 대해서 『注解傷寒論』 263조에서 “少陽之爲病，口苦咽乾目眩也.”라 하고 264조에서 “少陽病，兩耳無所聞，目赤，胸

15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5.

159) 成無己. 仲景全書注解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118.

16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5.

15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0.

中滿而煩者，不可吐下，吐下則悸而驚。”라고 하였는데 成無己는 “少陽中風，氣壅而熱，故耳聾，目赤，胸滿而煩。”라고 해서 少陽病 傷風證만 언급한 것에서 『醫學入門』의 小註에서 少陽病 傷寒證까지 더욱 발명한 것이다.

또한 「傷寒用藥賦·附六經傷風藥」에서 太陽에는 桂枝湯, 陽明에는 杏子湯, 少陽에는 柴胡桂枝湯, 太陰에는 桂枝加芍藥湯, 少陰에는 九味桂附湯, 厥陰에는 八物散을 제시하였는데¹⁶¹⁾, 이는 어디에서 인용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⑧ 經病과 腑病

六經의 經病과 腑病에 대해서 “然豈獨陽明，爲十二經之長 而有經腑之異乎。仲景曰，三陽受病，未入于腑，可汗而已。三陰受病，已入于腑，可下而已。則三陰，亦在經者，仍宜微汗之。蓋榮衛，屬太陽，主皮毛。胃腑，屬陽明，主皮膚之下肌肉之上 及腸胃也。胸脇，屬少陽，主血榮百節，流行三部。臟屬三陰，主筋骨并兩足，故太陽，爲陽證之表，胃爲陽證之裏，若但以臟腑而分表裏，則腑爲表，臟爲裏，若合榮衛臟腑 而分表裏，則表者，榮衛之所行，裏者，胃府之所主，而臟則又深於裏，但病入胃，則亦不更傳，不可不知。”¹⁶²⁾라고 하였다. 『傷寒例』에서 “此三經皆受病，未入於腑者，可汗而已。三陽受邪，爲病在表，法當汗解。然三陽亦有便入腑者，入腑則宜下，故云未入於腑者，可汗而已。…… 此三經皆受病，已入於腑，可下而已。三陰受邪，爲病在裏，於法當下。然三陰亦有在經者，在經則宜汗，故云已入於腑者，可下而已。經曰：臨病之工，宜須兩審。¹⁶³⁾”이라고 한 것을 小註에서 더욱 발명한 것이다.

陽明病의 經病과 腑病에 대해서 「[經]可解而[腑]可下，陽明爲之主焉」에서 “表多裏少，爲在經，宜清肌解表。裏多表少，爲在腑，宜和肌通裏。蓋陽明，標雖主肌，而其本則胃也。”¹⁶⁴⁾라고 하였다. 이는 『傷寒例』에서

“此三經皆受病，未入於腑者，可汗而已。三陽受邪，爲病在表，法當汗解。然三陽亦有便入腑者，入腑則宜下，故云未入於腑者，可汗而已。…… 此三經皆受病，已入於腑，可下而已。三陰受邪，爲病在裏，於法當下。然三陰亦有在經者，在經則宜汗，故云已入於腑者，可下而已。經曰：臨病之工，宜須兩審。¹⁶⁵⁾”이라고 한 것을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3) 朱肱의 『傷寒百問』(또는 『南陽活人書』, 『活人大全』)과의 비교

① 六經提綱

李梴은 六經提綱에 대해서 大註에 “[太陽]則頭疼身熱脊強”, “[陽明]則目痛鼻乾不眠”, “[少陽]耳聾脇痛寒熱嘔而口爲之苦”, “[太陰]腹滿自利尺寸沈而津不到咽”, “[少陰]舌乾口燥”, “[厥陰]煩滿囊拳”¹⁶⁶⁾이라고 하였다.

이는 『增注類證活人書』 卷一에서 “病家云，發熱惡寒，頭項痛，腰脊強，則知病在太陽經也。身熱目疼，鼻乾不得臥，則知病在陽明經也。胸脅痛耳聾，口苦舌乾，往來寒熱而嘔，則知病在少陽經也。腹滿咽乾，手足自溫，或自利不渴，或腹滿時痛，則知病在太陰經也。引飲惡寒，或口燥舌乾，則知病在少陰經也。煩滿囊縮，則知病在厥陰經也。”¹⁶⁷⁾라고 한 내용을 大註로 표현한 것이다.

② 脈象

太陽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浮，浮緊傷寒，浮緩傷風。”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活人書』에 “又問傷寒與傷風何以別之。傷寒者，脈繁而澀，傷風者，脈浮而緩，傷寒者無汗。(脈澀故也)”¹⁶⁸⁾라고 한 내용을 小註로 고쳐서 표현한 것이다.

③ 傳變 日數

六經病의 傳變 日數에 따른 치료의 차이에 대해서

16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299-1300.

16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95-1096.

163)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p.94-97.

16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5.

165)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p.95-97.

16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87-1090.

167)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55.

168)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159.

「經絡難拘日數」에서 “『活人』云, 一二日可發表而散. 三四日宜和解而痊. 五六日不解, 便實方可議下, 此皆論其常耳.”¹⁶⁹⁾라 하고, “『解惑論』云, 病人有虛實, 邪氣有遲速, 豈可拘於日數.”¹⁷⁰⁾라고 하였다.

그런데 『活人書』 「問三日以前當汗, 三日以後當下」에는 “古人云, 未滿三日者, 可汗而已, 其滿三日者, 可泄而已, 此大略之言耳. 病人有虛有實, 邪氣傳受, 遲速不等, 豈可拘以日數. 仲景云, 日數雖多, 但有表證而脈浮者, 由宜發汗. 日數雖少, 若有裏證而脈沈者, 即宜下之, 正應隨脈以汗下之. …… 假令有人脈浮頭項強痛, 發熱而惡寒, 每日如此, 不以日數多少, 只是太陽經受之, 其餘經絡皆仿此. 大抵傷寒憑脈與外證以汗下之, 若過日多, 脈尚大浮數, 按之不足者, 尚責太陽也, 可發汗而愈, 若按之實者, 汗之必死, 須下之而愈也, 若始得病脈細沈數, 外證或腹滿咽乾, 或口燥舌乾而渴, 爲正責屬裏, 可下之而愈, 若無此證, 但發熱脈沈者, 誤下必死, …… 此皆仲景之確論也.”¹⁷¹⁾라고 하였다.

「經絡難拘日數」에서 인용한 『活人書』의 원문 자체는 『增注類證活人書』에 없으며 陶華의 『傷寒六書』 「傷寒總論」에 “切不可執定一二日發表, 三四日宜和解, 五六日方下.”¹⁷²⁾라고 하였고, 또한 「論傷寒難拘日數辯」¹⁷³⁾에 그 내용이 있다. 『醫學入門』에서 인용한 『活人書』는 아마도 『活人大全』을 지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增注類證活人書』에서 인용한 『解惑論』은 湯才가 지은 『傷寒解惑論』을 지적하는데 이는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南陽活人書』 卷首에 붙어있다고 하였으나, 지금의 『增注類證活人書』에는 3권에 『傷寒解惑論』의 일부만 인용되어 있을 뿐 全文을 알 수가 없다.

④ 病機

太陽病證의 病機에 대해서 小註에 “凡言太陽證, 卽頭疼身熱脊強也. …… 以其脈上連風府, 故頭項背腰

脊強.”¹⁷⁴⁾라고 하였는데, 이는 『增注類證活人書』 卷一에서 “太陽之經爲諸陽主氣, 或中寒邪, 必發熱而惡寒, 緣頭項腰脊, 是太陽經所過處. 今頭項痛, 身體疼, 腰脊強, 其脈尺寸俱浮者, 故知太陽經受病也.”¹⁷⁵⁾라고 한 내용을 小註로 표현한 것이다.

⑤ 六經 傳變

六經病의 傳變 順序에 대해서 「經絡難拘日數」에서 “有循次傳者, 天運主氣者, 初氣厥陰風木, 二氣少陰君火, 三氣少陽相火, 四氣太陰濕土, 五氣陽明燥金, 六氣太陽寒水, 人生, 順受其氣, 病則逆其氣而傳變, 自下而上, 自外而內. 究其所以然者, 陽主動而位, 外陰主靜而位內. 人身膀胱氣血之會, 自頭背至足, 無所不主, 故風寒每先犯之. 其次, 胃氣流行無息, 自鼻腹至足, 皆其所主, 故太陽行督而交任, 必及於陽明也. 又其次, 少陽清氣主行營衛, 脇肋身側, 皆其所主, 故胃邪必移於膽部. 此三陽, 皆身之外而動者, 故爲表. 至於太陰, 人身五臟脾爲死陰, 至靜不動, 其所消食者, 全賴胃氣升降, 故自少陽, 脇肋下肚腹, 宜乎先入太陰也. 其次, 腎主受米穀之精, 而至靜, 惟子時濁氣一動而已, 故自中腹, 移至臍腹, 必及於腎也. 又其次, 肝惟主散血藏血, 而極其凝靜者, 故入裏之深. 至於小腹, 而下行已極, 乃復上行於手經. 此天然之序, 不可亂者如此.”라고 하였다.¹⁷⁶⁾

이는 『增注類證活人書』에서 “大抵傷寒病臟腑傳變, 陽經先受病, 故次第傳入陰經. 以陽主生, 故太陽水傳足陽明土, 土傳足少陽木, 爲微邪也. 陰主殺, 故木傳足太陰土, 土傳足少陰水, 水傳足厥陰木. 至六七日當傳厥陰肝木, 必移氣克於脾土. 脾再受賊邪, 則五臟六腑皆困而危殆, 營衛不通, 耳聾囊縮, 不知人而死矣, 速用承氣湯下之, 可保五死一生. 古人云, 脾熱病則五臟危. 又云, 土敗木賊則死. 若第六七日傳厥陰, 脈得微緩浮, 爲脾胃脈也, 故知脾氣全, 不再受克, 邪無所容, 痞極泰來, 營衛將復, 水升火降, 則寒熱作而大汗解矣.”¹⁷⁷⁾라고 六經病의 傳經 순서를 五行 相剋으로 설명한 것을 六氣의 主氣 순서로 바꾸고 더욱 발명한 것

16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1.

17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1.

171)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144.

172)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7.

173)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71-172.

17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7.

175)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59.

17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2.

177)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79.

이다.

六經病의 始終에 대해서 「經絡難拘日數」에서 “有風寒，自背入者，直中太陽少陽，自面入者，直中陽明，有首尾只在太陽經，而不傳諸經者，有間傳一二經者，有不傳而罷者，有不罷再傳者，有不自陽經，直中陰經者，此邪無定體，不可拘於日數也。活人云，六氣之邪，乘虛之經得之。”¹⁷⁸⁾라고 하였다.

이는 『增注類證活人書』에서 “又況六氣之邪，乘虛入經，自背得之則入太陽，或入少陰(緣少陰有伏脈在背)，自面感之，則入陽明之類，不必皆始於太陽。兼寒邪有首尾止在一經，或間傳一二經，不可以一理推，但據脈與外證治之，此活法也。假令有人脈浮頭項強痛，發熱而惡寒，每日如此，不以日數多少，只是太陽經受之，其餘經絡皆仿此。”¹⁷⁹⁾라고 한 내용을 고쳐서 반영한 것이다.

(4) 許叔微의 『傷寒百證歌』와의 비교

① 脈象

太陽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浮，浮緊傷寒，浮緩傷風.”¹⁸⁰⁾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 “尺寸俱浮屬巨陽.”¹⁸¹⁾라고 한 내용을 小註로 고쳐서 표현한 것이다.

陽明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長，長而微洪，經病。長而沈數，腑病.”¹⁸²⁾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 “脈長陽明爲受病.”¹⁸³⁾라고 한 내용을 小註로 고쳐서 표현한 것이다.

少陽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弦，弦而滑數者，陽極發厥。弦而和者，病欲散.”¹⁸⁴⁾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 “少陽經絡貫耳中，脈弦脅痛耳應聾.”¹⁸⁵⁾라고 한 내용을 小註로 고쳐서 표현

한 것이다.

太陰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邪在表，則見陽脈，邪在裏，則見陰脈，故尺寸俱沈。沈實有力，當下，沈細無力，當溫.”¹⁸⁶⁾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 “四五日中得太陰，太陰之脈細而沈.”¹⁸⁷⁾라고 한 내용을 小註로 고쳐서 표현한 것이다.

少陰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沈。沈實有力，當下。沈微無力，當溫.”¹⁸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 “少陰傳到脈沈緊.”¹⁸⁹⁾라고 한 내용을 小註로 고쳐서 표현한 것이다.

厥陰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沈。沈實有力，當下。沈遲無力，當溫。浮緩者，病自愈.”¹⁹⁰⁾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 “仲景云，尺寸俱微緩者，厥陰受病也.”¹⁹¹⁾라고 한 내용을 小註로 고쳐서 표현한 것이다.

② 病機

㉠ 太陽病

太陽病 項痛，腰脊強의 病機에 대해서 小註에 “凡言太陽證，卽頭疼身熱脊強也。……以其脈上連風府，故頭項背腰脊強.”¹⁹²⁾라고 하였는데, 『傷寒百證歌』에서 “尺寸俱浮屬巨陽，一二日內病如常，經絡一連風府穴，頭項痛兮腰脊強。(仲景云，尺寸俱浮者，太陽受病，當一二日發，以其上連風府，故頭項痛，腰脊強.)”¹⁹³⁾이라고 한 내용을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太陽病 身熱의 病機에 대해 “身熱者，寒客皮毛，鬱閉其陽，而後發熱。… 蓋傷寒始於寒 而終於成於熱也。惟不發熱，而但惡寒者，邪發於陰也.”¹⁹⁴⁾라고 하였는데,

17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2.

179)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144.

18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7.

181)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8-20.

18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183)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8-20.

18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185)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8-20.

18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187)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8-20.

18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189)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8-20.

19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0.

191)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8-20.

19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7.

193)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8-20.

19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87-1088.

이는 『傷寒百證歌』에서 “人傷於寒,則爲病熱,謂始爲寒,而終成熱也”¹⁹⁵⁾라고 한 내용을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㉞ 陽明經

陽明病 目痛,鼻乾,身熱,不眠의 病機에 대해 “以其經中客邪,故目痛鼻乾身熱者,陽明主肌肉,邪甚則身前皆熱,不眠者,煩盛津乾胃氣不和也.”¹⁹⁶⁾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서 “脈長陽明爲受病,二三日內斯爲應,挾鼻絡目是其經,目痛鼻乾眠不穩.(仲景,尺寸俱長者,陽明受病也,當二三日發,以其脈挾鼻絡於目,故身熱目疼,鼻乾,不得臥也.)”¹⁹⁷⁾라는 내용을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㉟ 少陽經

少陽病證의 病機에 대해 “以其脈循脇,絡於耳,故風熱上壅不利,則耳聾脇痛,寒熱往來,不食,嘔而口苦乾,目眩.”¹⁹⁸⁾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 “少陽經絡貫耳中,脈弦脅痛耳應聾,四日以前皆在腑,汗之即退易爲功.(仲景云,尺寸俱弦者,少陽受病也,當三四日發,以脈循脅於耳,故胸脅痛,而耳聾,此三經受病,未入臟,故可汗也.)”¹⁹⁹⁾라는 내용에서 發明한 것이다.

㊱ 太陰經

太陰病證의 病機에 대해서 “以其脈布胃中,絡於咽嗌,故腹滿或痛,而嗌喉下乾燥.或大便不通,小便如常,或自利手足溫而渴者,爲傳經腑熱.或自利不渴,手足冷者,爲直中陰經.或因內傷飲食,冷氣入脾,必腹痛,胸膈不快.”²⁰⁰⁾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 “四五日中得太陰,太陰之脈細而沈,布胃絡嗌嗌乾燥,脾胃腹滿病難禁.(仲景云,尺寸俱沈細者,太陰受病也,當四五日發,以其脈布胃中,絡於嗌,故腹滿而嗌乾矣.)”²⁰¹⁾라는 내용을 發明한 것이다.

㊲ 少陰經

少陰病證의 病機에 대해서 “以其脈起於足心,貫腎,絡於肺繫,故舌乾口燥而渴,或自利清水,心痛腹脹,或大便閉鞭,不欲厚衣者,皆熱入裏之深也.若厥逆畏寒,欲吐不吐,腹痛自利,小便白色,或乾嘔,亡陽咽痛,脈微欲寐者,乃陰毒入臟之深也.或下利體痛咳嘔者,水氣也.或飯食入口則吐.”²⁰²⁾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서 “少陰傳到脈沈緊,貫腎絡肺系舌本,口燥舌乾渴不休,五六日中病有準.(尺寸脈俱沈者,少陰受病也,當五六日發,以其脈貫腎,絡於肺,系舌本,故口燥舌乾而渴.)”²⁰³⁾라고 한 내용을 더욱 발명한 것이다.

㊳ 厥陰經

厥陰病證의 病機에 대해서 “以其脈循陰器,絡於肝,故脣青舌卷,或煩滿者,胸中氣滿急也.或囊拳者,陰囊縮也.在女子則陰戶急,痛引小腹,此傳經厥陰風熱毒,深於內也.肝木移熱剋脾,脾受賊邪,五臟六腑皆困,營衛不通.耳聾囊縮而厥,水漿不入,不知人則死.速下以救,五死一生.或下利譫語者,內有燥屎也.仍宜下之.或嘔而發熱者,和之.或發熱惡寒如瘧,囊不縮,脈微浮微緩,胃之脈,脾氣既全,不受賊邪,營衛將復,水升火降,寒熱作而大汗解矣.或下利腹脹身疼者,當先救表,而後溫裏.若下利清穀,大汗出而厥,四肢疼,小腹拘急,或乾嘔吐沫,或氣衝心痛,發熱消渴,吐衄,皆厥陰寒證也.宜溫之.”²⁰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서 “七八日至厥陰經,煩滿囊縮可憂驚,三陰受邪已入臟,卻宜瀉下自和平.(仲景云,尺寸俱微緩者,厥陰受病也,當六七日發,以其循陰器絡於肝,故煩滿而囊縮,必三陰皆已入臟,故可下而已也.)六經已盡傳亦遍,土不受邪脈來緩,水火相交氣已和,雲與雨至斯爲汗.(若傳至厥陰,其脈來緩者,脾土不再受克,故水升火降,氣和而大汗解矣.)”²⁰⁵⁾라고 한 내용을 더욱 發明한 것이다.

195)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8-20.

19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197)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8-20.

19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88-1089.

199)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8-20.

20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201)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8-20.

20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89-1090.

203)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8-20.

20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89-1090.

205)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8-20.

③ 傳變 日數

六經病의 傳變 日數에 대해서 太陽病의 期日에 대해서 小註에 “太陽受病, 當一二日發.”²⁰⁶⁾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 “尺寸俱浮屬巨陽, 一二日內病如常.”²⁰⁷⁾이라고 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陽明病의 期日에 대해서 小註에 “太陽脈靜則不傳. 如脈數急, 欲吐者, 此寒邪變熱, 傳於陽明, 當二三日.”²⁰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 “脈長陽明爲受病, 二三日內斯爲應.”²⁰⁹⁾이라고 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少陽病의 期日에 대해서 小註에 “少陽受病, 當三四日發.”²¹⁰⁾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 “四日以前皆在腑, 汗之即退易爲功.”²¹¹⁾이라고 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太陰病의 期日에 대해서 小註에 “太陰受病, 當四五日發.”²¹²⁾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 “四五日中得太陰.”²¹³⁾이라고 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少陰病의 期日에 대해서 小註에 “少陰受病, 當五六日發.”²¹⁴⁾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 “少陰傳到脈沈緊, …… 五六日中病有準.”²¹⁵⁾이라고 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厥陰病의 期日에 대해서 小註에 “厥陰受病, 當六七日發.”²¹⁶⁾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百證歌』에 “七八日, 至厥陰經.”²¹⁷⁾이라고 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20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7.
207)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8.
20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209)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9.
21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88-1089.
211)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9.
21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213)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9.
21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89-1090.
215)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9.
21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0.

(5) 陶華의 『傷寒六書』와의 비교

① 病機

太陽病 項痛, 腰脊強의 病機에 대해서 小註에 “凡言太陽證, 卽頭疼身熱脊強也. …… 以其脈上連風府, 故頭項背腰脊強.”²¹⁸⁾라고 하였는데, 『傷寒六書·傷寒言證不言病』에서 “如太陽傷寒, 爲表之表, 其經行身之後, 從頭下至足, 則頭項痛, 腰脊強之證見於項背也. 惡寒證亦在表. 蓋傷寒惡寒, 傷風惡風. 太陽爲寒水之經, 凡見惡寒便爲在表, 最爲的當.”²¹⁹⁾이라고 한 내용을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陽明病 目痛, 鼻乾, 身熱, 不眠의 病機에 대해 “以其經中客邪, 故目痛鼻乾身熱者, 陽明主肌肉, 邪甚則身前皆熱, 不眠者, 煩盛津乾胃氣不和也.”²²⁰⁾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六書』에서 “傳至陽明之經, 則不惡寒, 便不宜發表. 如有一毫頭項惡寒, 尚在太陽, 便是表證未罷, 不可攻裏. 故戒曰: 發表不開, 不可攻裏. 此事不明, 殺人至速. 又曰: 凡嘔者, 不可下. 經曰: 嘔多, 雖有陽明證, 不可攻, 攻之爲逆. 心下硬者, 不可下. 切宜仔細. 陽明經爲表之裏, 其經行身之前, 夾鼻絡於目, 故目痛, 鼻乾不眠.”²²¹⁾라는 내용을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少陽病證의 病機에 대해 “以其脈循脇, 絡於耳, 故風熱上壅不利, 則耳聾脇痛, 寒熱往來, 不食, 嘔而口苦乾, 目眩.”²²²⁾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六書』에 “少陽經行身之側, 爲半表半裏, 始於目銳眦, 循脅絡於耳, 交於膻中兩乳正中, 故胸脅痛而耳聾.”²²³⁾라는 내용에서 發明한 것이다.

② 脈象

太陽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浮, 浮

217)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續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0.
21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7.
219)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9-11.
22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221)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66-167.
22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88-1089.
223)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66-167.

緊傷寒，浮緩傷風。”²²⁴)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六書』에 “若太陽經則有二證，一爲傷寒，一爲傷風。脈浮緊，惡寒無汗，爲傷寒。脈浮爲在表，緊爲有寒。表受寒邪而未入裏，宜麻黃湯辛甘溫之劑以發之。(冬用正藥，三時用羌活湯。)此皆有惡寒頭痛，爲在太陽之表，尚未傳入裏，通宜發而散之。”²²⁵)라고 한 내용을 小註로 고쳐서 표현한 것이다.

陽明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長，長而微洪，經病。長而沈數，腑病。”²²⁶)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六書』에 “若在陽明則脈微洪而長，按之皮膚之下，肌肉之間，此非表非裏而爲在經。或渴，用葛根湯以解肌。”²²⁷)라고 한 내용을 小註로 고쳐서 표현한 것이다.

少明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長，長而微洪，經病。長而沈數，腑病。”²²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六書』에 “少陽經則脈弦數，不浮不沉，在乎半表半裏之間，宜小柴胡湯以和之。(有加減法。)此二經者，不從標本從乎中治也。中之下即肌肉之下，筋骨之間也。脈按之沉數有力，則爲熱入陽明之本，宜大柴胡湯，三承氣湯，看燥結微甚而下之。前之所云惡寒頭痛俱通治。脈不浮而沉實有力，此爲表證罷而裏證具，宜泄去其胃中實熱而愈矣。若老弱產虛，或帶表證必須下者，皆用大柴胡湯。”²²⁹)라고 한 내용을 小註로 고쳐서 표현한 것이다.

太陰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邪在表，則見陽脈，邪在裏，則見陰脈，故尺寸俱沈。沈實有力，當下，沈細無力，當溫。”²³⁰)이라 하고, 少陰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沈。沈實有力，當下。沈微無力，當溫。”²³¹)이라고 하고, 厥陰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沈。沈實有力，當下。沈遲無力，當溫。浮緩者，

病自愈。”²³²)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六書』에 “脈若沉遲，微弱無力，則又爲陰證也，宜溫而不宜下也，謹之。”²³³)라고 한 내용을 小註로 고쳐서 표현한 것이다.

③ 傳變日數

『醫學入門』의 「經絡難拘日數」의 전체 내용은 『傷寒六書』의 「論傷寒難拘日數辯」에서 “假如一日至十三日，若有一毫頭痛惡寒者，每日如此，不論日數多少，尚有表證未解，還用微汗，不可攻裏。若攻下之，則爲結胸等證。一二日，惡寒皆除，便覺胸中滿悶疼痛，大便閉，渴而不惡寒反怕熱，熱入裏也，大柴胡，承氣下之，切不可拘於日數並始太陽終厥陰之論也。二三日，邪傳陽明胃，身熱目痛，鼻幹不眠，按至皮膚之下，肌肉之間，脈來微洪而長者，屬半表半裏。渴而無汗，葛根湯；渴而有汗，人參白虎湯；微微惡寒者，桂枝湯。若無頭疼惡寒而反怕熱，便閉燥渴，狂言譫語，揭去衣被，揚手擲足者，此爲熱邪傳入陽明之本。脈來沉數有力，正宜承氣湯下之，泄去胃中實熱燥屎而愈也。三四日，邪傳少陽膽，胸脅痛而耳聾，寒熱，嘔而口苦，按至半陰半陽及脈來弦數者，是半表半裏也。緣膽無出入之路，用小柴胡。其經有三禁，汗，下，吐也。蓋陽明與少陽二經，不從標本從乎中治也。中者，半表半裏，兩陽交中，名曰少陽也。四五日，邪傳太陰脾，腹滿咽幹，口燥而渴，按至筋骨之間，脈來沉而有力者，桂枝大黃湯。若不渴，自利，身無熱，脈來沉緩無力者，四逆湯溫之也。五六日，邪傳少陰腎，舌幹口燥，重指按至筋骨之間，脈來沉而有力者，正用大柴胡，承氣下之。若發渴，自利清水不多，腹脹者，亦當下之。俱是陽邪傳入陰經之陰證也。若有一時初起，不入太陽，竟入太陰，無頭疼身熱，便見四肢厥冷，怕寒，或腹痛自利，小便清白，脈沉無力，或脈全無者，此是直中陰經之陰證也，非是三陽傳來，急用附子理中湯溫之。脈沉有二，陰陽，寒熱，虛實，用在有力無力中分。有力爲熱，無力爲寒。又有少陰太陽二證相並，脈沉無力，當無熱，今反有熱，如不頭痛者，陰證反陽也，麻黃細辛湯。身發熱，脈當浮大，今反沉細，若有頭痛者，陽證反陰也，四逆湯主之。六七日，邪傳厥陰肝，煩渴囊縮，舌卷耳聾，身不熱，大便閉，按至筋骨之間，脈實弦而有力，正用承氣下

22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7.

225)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66-167.

22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227)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66-167.

22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229)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66-167.

23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23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23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0.

233)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66-167.

之。此邪從三陽傳入三陰，外有厥冷，內有邪熱耳。如脈微而無力，腹痛自利，不渴，四肢厥冷，怕寒者，真陰寒證也，附子理中湯溫之。口中出沫流涎者，亦寒也，茱萸理中湯主之。”²³⁴⁾라고 한 것을 인용 발췌한 것이다.

六經病의 傳變 日數에 대해서 「經絡難拘日數」에서 “有首尾只在太陽經，而不傳諸經者，有間傳一二經者，有不傳而罷者，有不罷再傳者，有不自陽經直中陰經者，此邪無定體，不可拘於日數也，”라고 논하고 있는데, 이는 『傷寒六書』의 「傷寒總論」에서 “大抵病人表裏虛實不同，邪之傳變有異，豈可以日數為準。蓋風寒初中人無常，或入於陰，或入於陽，事無定體，非但始太陽終厥陰論也。或有自太陽始，日傳一經，六日傳至厥陰，邪氣衰不傳而愈者，或有不罷再傳者，或有即傳者，或有間經而傳者，或有傳至二三經而止者，或有始終只在一經者，或有越經而傳者，或有初入太陽不作鬱熱，便入少陰而成眞陰證者，或有直中陰經而成寒證者”²³⁵⁾의 내용을 인용 발췌한 것이다.

六經病의 傳變 日數에 따른 치료에 대해서 「經絡難拘日數」에서 “陶節庵云，但見太陽證，即用麻桂，汗太陽。見少陰證，即用理中，溫少陰。見陽明證，即用承氣，下陽明。見眞寒證，直入陰經，即救眞寒，此最活法。”²³⁶⁾라 하였는데, 『傷寒六書』에서 “但見太陽證者，宜直攻太陽。但見少陰，直攻少陰，此活法也”²³⁷⁾라고 한 내용을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傷寒病의 원인이 腎水枯竭이라는 것에 대해서 「寒傷[榮]而 風傷[衛]，太陽爲之首爾」에서 “太陽爲之先者，傷寒，因腎水虧損，至春，木無生意，故發爲溫病。至夏，絕生化之原，發爲熱病，所以太陽少陰，二經受病，最多最先。”²³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六書』의 「傷寒統論受病之由」에서 “夫傷寒者，冬時天氣嚴寒，水冰地凍，而成殺厲之氣，正乃腎與膀胱坎水用事，體虛觸冒之人，中而即病，曰傷寒；不即病者，乃寒毒藏於肌膚。此因腎水涸竭，春木無以發生，熱不能發

泄，藏鬱於內，遇感而發，至春變爲溫病，至夏變爲熱病，熱病重於溫病也。”²³⁹⁾라고 한 내용을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④ 六經의 標本論治

六經病의 標本에 대해서 「標本須明後先」에서 “標者，梢末。本者，根本。以主言之，各經絡爲標，各臟腑爲本。如太陽經爲標，膀胱爲本，餘倣此。以客邪言之，先受病爲本，次受病爲標。標本相傳，治其急者。”²⁴⁰⁾라고 하였다.

『傷寒六書』의 「傷寒標本論」에서 “夫傷寒標本不明，如瞽者夜行，無路可見也。原標者，病之梢末；本者，病之根本。先受病爲本，次受病爲標。標本相傳，先以治其急者，此良法也。假如先起頭痛惡寒，就爲本，已後發熱，就爲標，此受病之標本也。將此一件推之，餘皆仿此。又脈之標本者，假如浮沈爲本，虛實爲標，此脈之標本也。”²⁴¹⁾라 하고, 「傷寒標本論治」에서 “病之有標本，猶草之有根苗。拔茅須連其茹，治病必求其本。標本不明，處方何據？所謂瞑目夜行，無途路而可見矣。原夫六氣爲本，三陰三陽經爲標。病氣爲本，臟腑經絡受病爲標。先受病爲本，次受病爲標。且如尺寸俱浮者，太陽受病也。其經標本，膀胱，小腸也。膀胱寒水爲本，其脈循脊上連風府，故頭疼脊強。小腸爲標，主發熱。其正冬月時，在本者麻黃湯，在標者桂枝湯，餘月改用沖和湯也。尺寸俱長者，陽明受病也。其經標本，大腸與胃也。大腸爲標，燥金爲本，大腸與肺爲表裏。但發熱，解肌湯。本脈絡鼻循目，故目痛鼻乾，不眠，虛則汗解，實則大柴胡，承氣選用。尺寸俱弦者，少陽受病也。其經標本，三焦與膽也。三焦相火，本也，遊行乎一身，故微熱。足膽，標也，其脈循脅絡耳，故耳聾脅痛，寒熱，嘔而口苦。緣膽無出入之路，故從中治證，用小柴胡和解散而愈。其經有三禁，汗，下，吐是也。尺寸俱沈者，太陰受病也。其經標本，肺與脾也。肺標，脈循咽。脾本，濕土。故腹滿咽乾，當得本治，宜泄，大柴胡，承氣也。尺寸俱微沈者，少陰受病也。其經標本，心與腎。君火爲本，心苗舌，故舌燥。標腎，脈

234)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71-172.

235)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47-49.

23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1.

237)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7.

23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5.

239)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69-170.

24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3.

241)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66.

循肺, 主口乾, 故口乾舌燥. 故在標者, 因身冷, 治主薑附也. 在本者, 宜下, 三乙承氣, 看微甚而用之. 尺寸俱微緩, 厥陰受病也. 其經標本, 肝與心包絡也. 風木爲本, 下循陰器, 故囊縮; 標心包絡, 系舌, 故舌卷. 大抵溫之, 四逆輩. 其四經並前三經中, 若有陽分傳來者, 下之, 庶不誤也.”²⁴²⁾라고 하였다.

『傷寒六書』에 실린 위와 같은 내용을 李梴이 小註에 다음과 같이 더욱 구체적으로 發明한 것이다.

『醫學入門』「標本須明後先」에서 “請詳言之, 太陽, 膀胱爲本, 故頭疼脊強. 小腸爲標, 與心爲表裏, 故發熱, 冬月, 麻黃桂枝, 餘月, 九味羌活湯. 陽明, 大腸爲標, 與肺爲表裏, 故微惡寒發熱, 爲經病, 葛根解肌湯, 渴而有汗不解者, 白虎湯. 胃爲本, 目痛鼻乾, 潮汗閉澀滿渴狂譫, 爲腑病, 調胃承氣湯. 少陽, 三焦相火爲本, 遊行一身, 故微熱. 膽, 爲標, 耳聾脇痛, 寒熱, 嘔而口苦, 緣三焦無形, 膽無出入之路, 故從中治, 標本俱, 小柴胡湯. 太陰, 肺爲標, 咽乾, 身目黃, 脾爲本, 腹滿痛, 謂之腑熱. 咽乾, 腹滿, 手足溫者, 桂枝加大黃湯, 或大柴胡湯. 身目黃者, 茵陳湯. 胸滿者, 瓜蒂散. 如自利不渴, 或嘔吐者, 屬臟病, 理中湯丸. 少陰, 心爲本, 故舌乾口燥, 或逸躄硬痛, 或心下硬痛, 或下利純清水, 或譫語便閉, 小承氣湯. 腎爲標, 面寒如力刮, 脣青, 不渴吐利, 胸腹絞痛, 四肢厥逆, 指甲黑, 蹠臥, 身如被杖, 古姜附湯. 厥陰, 心包絡爲標, 故舌卷, 厥逆, 冷過肘膝, 吐沫嘔逆, 不渴, 小腹絞痛者, 爲寒, 三味蓼黃湯, 四順湯. 肝, 爲本, 主男子囊縮, 女人陰挺乳縮, 或手足冷乍溫, 大便實, 消渴, 煩滿者, 屬熱, 大承氣湯. 似瘧, 不嘔, 二便自調者, 必自愈. 不愈, 脈遲有汗者, 小建中湯. 脈濇無汗者, 桂麻各半湯. 其囊乳縮證, 寒證, 亦有之. 此萬法之祖也. 學者於此, 而一悟焉, 則病機到手矣. 自非仲景, 玉函內秘, 其孰能與於斯乎. 此後, 汗吐下溫和解諸方, 不甚詳載, 止言宜汗宜吐宜下宜和, 悟之.”²⁴³⁾라고 하였다. 이는 『傷寒六書』의 「傷寒標本論」의 내용을 李梴이 더욱 구체적으로 發明한 것으로, 三陰三陽의 病證을 手足의 陰陽을 기준으로 나누어 標本의 病을 구분하여 치료하였다.

또한 『醫學入門』에서 少陽病의 치료에 대해서 「少陽原從乎[中治]禁汗禁下」에서 “少陽, 居太陽陽明之中, 半表半裏, 禁汗, 恐犯太陽, 禁下, 恐犯陽明, 禁滲, 恐生發之氣陷入陰中, 只宜和之以小柴胡湯. 犯三禁, 則變不可勝, 他如太陽經, 禁下與滲, 犯之則動血, 熱入裏而難解. 陽明經, 禁汗如滲, 犯之則竭津, 血蓄下而如狂. 益津液者, 連鬚蔥白湯, 是也. 又下證中治, 見合病.”이라고 하였다. 이는 傷寒六書의 「論傷寒正治逆治反攻寒熱辯」에 “尺寸俱弦者, 少陽受病也. 其經標本, 三焦與膽也. 三焦相火, 本也, 遊行乎一身, 故微熱. 足膽, 標也, 其脈循脅絡耳, 故耳聾脅痛, 寒熱, 嘔而口苦. 緣膽無出入之路, 故從中治證, 用小柴胡和解而愈. 其經有三禁, 汗, 下, 吐是也.”²⁴⁴⁾와 「論傷寒難拘日數辯」에 “三四日, 邪傳少陽膽, 胸脅痛而耳聾, 寒熱, 嘔而口苦, 按至半陰半陽及脈來弦數者, 是半表半裏也. 緣膽無出入之路, 用小柴胡. 其經有三禁, 汗, 下, 吐也. 蓋陽明與少陽二經, 不從標本從乎中治也. 中者, 半表半裏, 兩陽交中, 名曰少陽也.”²⁴⁵⁾와 「治傷寒用藥大略」에 “在少陽, 則胸脇痛而耳聾, 脈見弦數, 以小柴胡湯加減而和之(本方有加減法), 此二經不從標本, 從乎中治.”²⁴⁶⁾라고 한 내용을 小註로 반영한 것이다.

⑤ 傳經과 直中

『醫學入門』에서 三陰病의 傳經과 直中에 대해서 「三陰利用乎變法有[中]有[傳]」에서 “三陰, 最不可執, 有宜下者, 有宜溫者. 自三陽氣分, 傳入三陰, 謂之傳經陰證. 傳, 非傳入脾腎肝也, 乃入三陰血分, 胃與大小腸之府也, 故仲景, 謂已入於府可下者, 是也. 若不自陽經傳來, 直中三陰之經. 初起, 厥逆腹痛, 自利不渴. 太陰, 自受寒也, 上證, 加之嘔吐. 少陰, 自受寒也, 又加之小便清利. 厥陰, 自受寒也, 熱藥, 溫之, 猶恐或遲. 陰陽一差, 生死立判. 雖然, 傳經, 直中, 先腎發之盡矣. 然豈無傳變者乎. 假如傳經之際, 輕生者, 或被生冷, 或犯房慾, 或粗工, 猛施汗下, 眞氣衰弱, 陽證變爲陰證, 如俗所謂陽證歸陰, 仍宜直中寒證法治, 故內經, 止言傳變, 而不言直中者, 蓋言變則包直中. 今局方, 言傳陰傳陽則不

242)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66.

243)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93-1094.

244)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67.

245)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71.

246)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7.

是，當言傳陽變陰，庶乎傳經爲裏熱，直中與變，爲裏寒。”²⁴⁷⁾라고 하였다.

이는 『傷寒六書』의 「傷寒總論」에서 “大抵病人表裏虛實不同，邪之傳變有異，豈可以日數爲準。蓋風寒初中人無常，或入於陰，或入於陽，事無定體，非但始太陽終厥陰論也。或有自太陽始，日傳一經，六日傳至厥陰，邪氣衰不傳而愈者，或有不罷再傳者，或有即傳者，或有間經而傳者，或有傳至二三經而止者，或有始終只在一經者，或有越經而傳者，或有初入太陽不作鬱熱，便入少陰而成眞陰證者，或有直中陰經而成寒證者，…… 又將傳經陰證與直中陰經之陰證混同立論，豈爲善乎。…… 直中傳陰必有活法，今皆忘失而無征也。…… 眞知其爲表邪而汗之，眞知其爲裏邪而下之，眞知其爲直中而溫之。”²⁴⁸⁾와 「傷寒備要脈證指法」에서 “若脈來沈遲無力，此爲直中陰經眞寒證之陰脈，其證無頭痛，無身熱，初起怕寒，手足厥冷，或戰栗蜷臥，不渴，兼之腹痛，嘔吐泄瀉，或口出涎沫，面如刀刮者，乃陰經自中之寒，不從陽經傳入，故不在傳經熱證治例，更當看外證如何，輕則理中湯，重則薑附四逆以溫之。…… 然三陰俱是沈脈，妙在指下有力無力中分。有力者，爲陽，爲實，爲熱；無力者，爲陰，爲虛，爲寒，最爲切當。…… 夫三陰傳經熱證，脈雖開明，論尤未詳，重加訂證。如腹滿咽乾，屬太陰；舌乾口燥，屬少陰；煩滿囊縮，屬厥陰。此三者，俱是陽經傳入陰經之熱證。脈見沈實有力，急當攻裏，下之。如其下後利不止，身疼痛，脈反沈細無力，又當救裏，溫之。此權變之法也。三陰傳經熱證，與其三陰直中寒證，脈雖沈，而有力無力所別，證有異而治各不同，是其大法也歟。”²⁴⁹⁾라고 하고 「傷寒統論受病之由」에서 “然正氣亦能爲病，春傷於風，夏必飧泄；夏傷於暑，秋必瘧痢；秋傷於濕，冬必咳嗽；冬傷於寒，春必溫病，總曰傷寒。病自外而入，或入於陽，或入於陰，非但始於太陽，終於厥陰。或有太陽傷者，或有傳至一二經而止者，或有始終只在一經者，或有越經而傳者，或有入太陽不作鬱熱，便入少陰而成陰證者，或有直中陰

經而成寒證者，緣經無明文，故多妄治。”²⁵⁰⁾라고 한 내용을 小註에 반영한 것이다.

⑥ 傳經과 直中の 脈象

直中三陽과 傳經三陰, 直中三陰의 脈象에 대해서 「三陰利用乎變法有[中]有[傳]」에서 “臨證參脈, 直中三陽, 傳經三陽, 病在於表, 脈浮長弦, 傳經三陰, 病在於裏, 脈沈數實, 直中三陰, 病在於經, 脈沈微緩, 此表裏虛實大分, 非專以陽爲熱, 陰爲寒也.”²⁵¹⁾라고 하였는데 ‘直中三陽’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 독특하다.

⑦ 陽經과 陰經의 傳經의 차이점

『醫學入門』에서 陽經과 陰經의 傳經의 차이점에 대해서 「三陰利用乎變法有[中]有[傳]」에서 “三陰, 最不可執, 有宜下者, 有宜溫者. 自三陽氣分, 傳入三陰, 謂之傳經陰證. 傳, 非傳入脾胃肝也, 乃入三陰血分, 胃與大小腸之府也, 故仲景, 謂已入於府可下者, 是也.”²⁵²⁾라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統論受病之由」에서 “若三陽傳至三陰之陰證, 外雖有厥冷, 內有熱邪耳. 若不發熱, 四肢便厥, 惡寒者, 此是直中陰經之陰證也. 蓋先起三陽氣分, 傳入三陰血分, 則熱深厥亦深矣. 此尤則害, 承乃制者歟, 熱極反兼寒化也.”²⁵³⁾라고 한 것을 小註에서 더욱 發明한 것이다.

⑧ 傷足·傳手와 不傷足·不傳手

『醫學入門』의 「謂[傷足]而不傷手則可以寒爲足之所司」에서 “手之六經, 主於春夏, 足太陽少陰, 正司冬冷, 觸冒之者, 則二經受病, 其次則少陽厥陰, 繼冬而司春冷, 至春分後, 方行溫冷, 故風寒亦能傷之. 足陽明, 與冬本無與, 然寄旺四季, 寒熱溫涼之氣, 皆能傷之. 況表邪傳裏, 必歸脾胃, 而爲燥糞, 用湯藥下之, 而胃和矣.”²⁵⁴⁾라고 하고, 「謂傳足而[不傳]手不可蓋熱爲手之所冤」에서 “人身之氣, 每日周行三百六十五骨節, 以應

24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96-1097.

248)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47-49.

249)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50-51.

250)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69-170.

25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6.

25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96-1097.

253)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69-170.

25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7.

周天三百六十五度, 血亦隨氣, 運行腠理, 以爲一身動靜云爲之主, 所以一脈愆和, 百脈皆病. 況風寒中人, 先入榮衛, 晝夜循環, 無所不至, 豈間斷于手經哉. 七日不愈, 而再傳者, 乃足經移熱, 傳于手經, 如冤家之相撫也. 雖然, 手冤亦推本言耳. 上古, 止分三陰三陽, 而不分手足. 其意甚深. 況手足三陽, 同手走頭至足, 手足三陰, 同足走胸腹與手, 豈有經絡同, 而受病又有不同者哉. 卽如喘咳, 發熱, 分明手太陰, 太陽病也. 狂言 讒語, 分明手少陰病也. 胸滿乾嘔耳聾, 分明手厥陰, 少陽病也. 認真, 五臟六腑, 俱有表裏二證, 蓋人之情慾, 天之淫邪, 自然不齊, 故病多標本兼見. 假令脈弦面青, 目痛筋急, 善怒, 心下滿者, 兼肝有風也. 脈洪面赤, 口乾善笑, 身熱者, 兼心有熱也. 脈緩面黃, 身重肢疼, 嗜臥者, 兼脾有濕也. 脈澁面白, 帶憂喘嗽, 下衄者, 兼肺有燥也. 脈微面黑, 善恐, 耳閉氣逆而泄, 兼腎有寒也. 凡邪出於外, 則爲腑爲表, 入於內, 則爲臟爲裏, 不拘何臟何腑, 表證必同歸於太陽, 裏證必同歸於陽明. 噫. 法無定用, 病有定體, 知此 則百病機關, 一悟可了, 又何疑於手經之不受病耶.”²⁵⁵⁾라고 하였다.

『傷寒六書』 「論傷寒傳足不傳手之誤」에서 “傷寒傳足不傳手, 此謬言也. 人之一身, 無非血氣, 且風行水動, 氣行血流, 晝夜循環而運行不息, 豈有不傳手經哉! 何所據也? 冬月腎水用事, 天氣嚴寒, 則足少陰, 太陽正司, 受傷二經最多. 其次是少陽, 厥陰肝膽, 繼冬而施春令. 蓋風木起於大寒之節, 卽正當十二月中, 至春分方行溫令, 故風寒傷之. 足陽明, 太陰, 脾胃中土, 中土無定位, 無成名, 寄旺於四時, 寒熱之氣, 皆能傳也, 其邪亦歸於胃. 其手之經, 主於夏秋, 故不傷也. 若言傷足不傷手, 正理也. 若言傳足不傳手, 非理也.”²⁵⁶⁾라고 한 것을 『醫學入門』小註에서 더욱 發明한 것이다.

(6) 楊士瀛의 『仁齋直指』와의 비교

① 脈象

太陽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浮, 浮緊傷寒, 浮緩傷風.”²⁵⁷⁾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仁齋直

指』에 “太陽病, 自汗脈浮緩, 爲傷風, 用桂枝湯. 無汗脈浮緊爲傷寒, 用麻黃湯.”²⁵⁸⁾이라고 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陽明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長, 長而微洪, 經病. 長而沈數, 腑病.”²⁵⁹⁾이라 하고, 少陽經의 病脈은 “脈尺寸俱弦, 弦而滑數者, 陽極發厥. 弦而和者, 病欲散.”²⁶⁰⁾이라 하고, 太陰經의 病脈은 “邪在表, 則見陽脈, 邪在裏, 則見陰脈, 故尺寸俱沈. 沈實有力, 當下, 沈細無力, 當溫.”²⁶¹⁾이라 하고, 少陰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沈. 沈實有力, 當下. 沈微無力, 當溫.”²⁶²⁾이라고 하고, 厥陰經의 病脈에 대해서 小註에 “脈尺寸俱沈. 沈實有力, 當下. 沈遲無力, 當溫. 浮緩者, 病自愈.”²⁶³⁾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仁齋直指』에 “太陽脈浮, 陽明脈長, 少陽脈弦, 太陰脈沈細, 少陰脈沈帶緊, 厥陰脈沈緩, 尺寸俱如此.”²⁶⁴⁾라고 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經病과 腑病의 차이를 언급하였으나 그 脈象의 차이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② 傳經 日數

『醫學入門』의 「寒傷[榮]而 風傷[衛], 太陽爲之首爾」에서 “太陽爲之先者, 傷寒, 因腎水虧損, 至春, 木無生意, 故發爲溫病. 至夏, 絕生化之原, 發爲熱病, 所以太陽少陰, 二經受病, 最多最先.”²⁶⁵⁾이라고 하여 太陽病과 少陰病이 가장 많으며 가장 먼저라고 하였는데, 이는 『仁齋直指』에서 “陽受病則在腑, 陰受病則入臟, 發於陽則先屬太陽, 發於陰則先屬少陰, 此二經受病最多.”²⁶⁶⁾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258) 楊士瀛. 欽定四庫全書仁齋直指.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70.

25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26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8.

26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26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9.

263)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0.

264) 楊士瀛. 欽定四庫全書仁齋直指.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73.

265)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95.

266) 楊士瀛. 欽定四庫全書仁齋直指.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73.

255)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p.1097-1098.

256)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70-71.

25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7.

III. 結 論

『醫學入門·傷寒篇』 중에서 「六經」條에 대해, 『醫學入門』에서 인용한 王冰의 『黃帝內經注』, 成無己의 『注解傷寒論』과 『傷寒例』, 朱肱의 『南陽活人書』, 『傷寒百問』, 許叔微의 『傷寒百證歌』, 楊士瀛의 『仁齋直指』를 위주로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醫學入門·傷寒篇』에서 인용한 『傷寒論註』는 成無己의 『注解傷寒論』과 『傷寒例』를, 陶華의 『六書』는 陶華(陶節庵)의 『傷寒六書』(또는 『傷寒瑣言』)를, 『百問』과 『活人大全』, 『活人書』는 朱肱의 『南陽活人書』를, 『百證歌』는 許叔微의 『傷寒百證歌』를, 『仁齋直指』는 楊士瀛의 『仁齋傷寒類書』를, 『王氏家寶』는 王震의 『王氏家寶傷寒證治條明備覽』을 지적한 것이다.

2. 『醫學入門·傷寒篇』에서 언급한 「經」은 『內經』을 인용한 것을 표시한 것뿐만 아니라 張仲景의 『傷寒論』을 인용한 것도 「經」으로 표현하였다.

3. 六經 提綱 및 病證은 주로 成無己의 『傷寒例』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고, 病脈과 傳變 日數는 『素問·熱論』을 비롯하여 『注解傷寒論』, 『傷寒例』, 『傷寒百問』(또는 『南陽活人書』, 『活人大全』), 『傷寒百證歌』, 『傷寒六書』, 『仁齋直指』 등의 내용을 종합 발췌한 것이고, 病機는 주로 『傷寒例』, 『傷寒百證歌』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4. 三陽病의 傷風證과 傷寒證의 차이점에 대해 『注解傷寒論』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며, 六經의 經病과 腑病의 證狀 및 치료의 차이에 대해서 『傷寒例』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또한 「經絡難拘日數」, 「標本須明後先」, 傷足·傳手와 不傷足·不傳手는 주로 『傷寒六書』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5. 六經 所屬諸證은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그중 少陽 所屬病證은 太陽病

篇에도, 太陰 所屬病證은 陽明病 篇에도 소속되어 있다.

6. 六經 傳變 順序에 대해서 『增注類證活人書』에서 五行의 相剋으로 설명한 것을 『醫學入門』에서는 六氣 主氣의 逆順으로 변형하여 설명하였다.

앞으로 『醫學入門·傷寒篇』의 五法에 대해서도 『醫學入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인용서적의 내용을 비교할 가치가 있다.

參考文獻

<논문>

1. 차웅석, 김남일. 의학입문의 편제분석. 경희한의대논문집. 22(1). 1999.

<단행본>

1. 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6. p.395, 436.
2. 陶華.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7.
3. 徐春甫. 古今醫統大全(上).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p.601-768.
4. 成無己. 仲景全書·傷寒例.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43, 94. pp.94-97.
5. 成無己. 仲景全書·注解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118, 119, 120, 279.
6. 成無己 著. 김동희, 김성우, 김성훈, 김정범, 맹웅재, 문준진, 박종오, 박종현, 신상우, 신영일 共編. 現代傷寒論. 서울. 한의문화사. 2005. p.49, 63, 71, 74, 76, 78, 80, 83, 85, 87, 88, 104, 105, 107, 113, 116, 118, 131, 142, 148, 151, 153, 160, 161, 168, 181, 184, 185, 191, 193, 194, 195, 200, 202, 206, 216, 219, 220, 248, 253, 257, 266, 273, 275, 276, 284, 285.
7. 楊士瀛. 欽定四庫全書·仁齋直指.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570-664.
8. 嚴世堃.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 p.292, 340, 361.
9. 王冰 著.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역. 黃帝內經素問王冰注(中). 大田. 周珉出版社. p.5. pp.5-8.
 10. 李梴 著. 채인식, 안병국, 이병행 역. 국역편주의학입문(I). 서울. 南山堂. 1979. pp.7-10.
 11. 李梴 著. 채인식, 안병국, 이병행 역. 국역편주의학입문(III). 서울. 南山堂. 1979. p.23.
 12. 李梴. 醫學入門(上). 서울. 南山堂. 1991. p.14.
 13.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087, 1088, 1089, 1090, 1091, 1095. pp.1299-1300.
 14. 趙道震. 永樂大典(醫藥集). 北京. 인민위생출판사. 1986. pp.7-31.
 15. 朱肱 著. 임진석 역. (國譯)活人書. 서울. 아티진. 1997.
 16.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서울. 南山堂. 1987. p.3, 55, 114, 159.
 17. 許叔微. 中國醫學大成績集(24)·傷寒百證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8-20.
 18. 洪元植.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7. p.157.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98.

